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대학생 발달의 관점에서 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이 수 지

2013년 12월

변 기 용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논 문

대학생 발달의 관점에서 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年 12月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이 수 지



李秀智의 文學碩士 學位論文

審査를 完了함.

2013年 12月

委員長

변기봉



委員

심현석



委員

오명재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 정의	5
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Exchange Student Program)	5
나. 대학생 발달	6
II. 이론적 배경	7
1.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7
가. 고등교육의 국제화 현상과 학생이동	7
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현황과 목적	12
2. 고등교육과 대학생의 발달	15
가. 학생발달이론	15
나. 대학효과이론	17
3.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대학생의 발달	19
가. 학생발달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효과	20
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 전략	29
III. 연구 방법	35
1. 사례연구 대상 대학	36
2. 연구 참여자	38
3.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40



IV. 연구 결과	44
1.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참여를 통해 나타난 대학생 발달 양상	44
가. 문화적 태도	44
나. 학습태도	59
다. 직업과 성공에 대한 인식 전환	72
라. 사회·심리적 성장	82
2.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 발달의 영향요인 탐색	89
가. 개인 차원의 요인	89
나. 환경 차원의 요인	95
 V. 요약, 결론 및 제언	 109
1. 요약	109
2. 결론	112
3. 제언	114
 참 고 문 헌	 118
ABSTRACT	126



<표 목 차>

<표 II-1>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 추이	12
<표 II-2> 국가별 대학 교류건수: 파견 학생 수 (2012-2013)	13
<표 II-3> 국가별 대학 교류건수: 유치 학생 수 (2012-2013)	14
<표 III-1> K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37
<표 III-2> K대학의 주요 국가 교환학생 파견 현황	38
<표 III-3> 연구 참여자 정보	39
<표 III-4> 면담 질문내용	41



<그 립 목 차>

[그림 II-1] 국외 한국인 유학생 추이 변화(2001-2012년)	9
[그림 II-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추이 변화(2003-2012년)	1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는 국제화 시대가 도래 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국가 간 경쟁은 점차 심화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고등교육 부문이 국제화 현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엄상현·변기용, 2012; 이병식, 2006). 대학은 국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지은림, 2007; 최준규, 2008). 더불어 교육 시장 개방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각 대학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영어 강의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대학 국제화 전략으로 자리매김 해 왔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각 대학이 협약을 맺은 보증된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국제 교류 활동이다. 더불어 대학생 사이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자 외국어 능력 등 국제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취업을 위한 하나의 ‘스펙’으로도 여겨져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¹⁾, 외국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2011년 27,897명에서 2013년 32,19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또한 대학 차원에서도 해외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정 교류를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경희대 65개국 380개교, 고려대 49개국 395개교, 연세대 60개국 623개 대학과 협정 체결). 그러나 대학이 교류를 늘리기에만 급급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유익한 경험을 하고 효과적으로 목

1) ‘스펙 공화국’ 면하려면 기업 채용 방식 바뀌어(서울신문, 2012.10.27.); 휴학 권하는 사회... 55%가 “기업 원하는 스펙 쌓으러 휴학”(조선일보, 2012.12.08.)



표를 성취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신태진, 2011).

최근에는 각 단과대학 차원의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등 기회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학생이동은 고등교육 국제화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국제화 전략이면서 동시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경험은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측면에서 발달을 보이며, 왜 어려움을 겪는지 그들의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피기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 신태진(2011)과 참여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본 양성혜(2007)와 Ahn(2011),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재인식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한 박소진(2010)이 대표적이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의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외국어 능력 향상 간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 연구(박상옥, 2003; 조재옥, 2005)와 해외 자원봉사 경험과 세계시민의식 간의 관계를 살핀 김정화 외(2010) 이외에는 단기적인 국제 학생이동 경험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중 박소진(2010)과 양성혜(2007)는 참여 학생들의 경험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박소진(2010)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험과 이후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적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인식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그러나 문화적 역량에 한정하여 학생들의 경험과 변화를 살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학생 발달 양상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양성혜(2007)도 스페인어권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개방적인 문화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에 초점을 두었기에 학생들의 경험을 폭넓게 살피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 문화적 체험 등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생활하는 만큼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변화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 연구는 학생들의 경험을 충분히 살펴보기에 한계점을 갖는다.

국내 연구 동향과 비교할 때, 외국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발달 양상을 살피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문화적 역량의 향상에 주목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 졌으며(Bakalis & Joiner, 2004; Chieffo & Griffith, 2004; Clarke et al., 2009; Stephenson, 1999), 학업 성과를 살피기 위한 연구(Gonyea, 2008; Teichler, 2004; Zhou et al., 2008)와 참여 경험을 통한 직업 인식 변화측면을 살피고자 한 연구(Norris & Gillespie, 2009; Wiers-Jenssen, 2008)도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Lewis & Niesenbaum, 2005; Relyea et al., 2008)하거나 전공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연구(Chieffo & Griffiths, 2004; Cushner & Mahon, 2002; Sowa, 2002)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으로 프로그램이 학생발달에 주는 의미를 강조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학생들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어떤 발달을 겪게 되는지 주목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점차 해외 협정 대학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는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듣고 학생들이 참여 경험을 통해 어떤 발달상의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의 변화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학생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을 탐색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떠한 발달상의 변화를 경험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가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미를 살리고 학생 발달 측면을 고려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돕기 위한 행정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떠한 발달상의 변화를 경험하는가?

둘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발달상의 변화를 초래한 주요한 영향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Exchange Student Program)

국내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이 학생과 등록금을 일대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며 언어와 문화 등을 익히고 국제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최근 국내 대학의 주요 국제화 정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해외 협정 대학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 학생을 추천하며, 추천된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는 협정 대학에서 결정한다.

학생들은 정규 학기 기간 동안 파견 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정규 수업을 수강하고 귀국 후 소속 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추가로 학위가 수여되지는 않는다. 파견 기간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 참여 가능 기간은 1년이다. 정규 학기 외에도, 방학이나 학기의 일부 기간 동안 파견 학교에서 수학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규 수업이 아닌 어학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학교 간 교류협정 내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교환학생 프로그램(ESP)과 더불어 방문학생 프로그램(VSP: Visiting Student Program)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일대일 교환이 아닌 일방적인 파견 방식으로, 학생은 소속된 국내 대학이 아닌 파견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한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일부 영어권 국가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되며, 학생의 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점 이외에는 대부분의 운영 방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K대학이 운영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방문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한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을 모두 일컬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나. 대학생 발달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마무리하고 성인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배우고 준비하는 후기 청소년기에 속한다. 후기 청소년기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마주하게 되고,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을 통해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발달 과정을 거친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한 학생들은 학업 능력 뿐 아니라 독립적 생활태도,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 직업 생활 준비와 같은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발달할 것이라 기대된다(김혜래, 2013).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대학 교육 경험 중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대학생 발달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대학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대학생의 발달과 더불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국제화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히 학생의 어학능력, 타문화 이해 능력 등의 측면에서 학생 발달을 기대한다. 더불어 대학 교육을 통해 발달이 기대되는 학습역량, 사회·심리적 성장, 직업 가치관 등의 변화 또한 대학생의 발달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태도와 행동 변화를 중심으로 대학생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귀국 후에도 발달 모습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국내 대학에서의 생활 변화와 지속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지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학생들의 시도와 노력 또한 발달의 한 과정으로 보아 분석 과정에 포함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가. 고등교육의 국제화 현상과 학생이동

정보화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세계화 흐름에 대응하여 발생한 초국가적인 협력과 활발한 교류는 국제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Teichler, 2004; Van der Wende, 1997),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에 걸쳐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 국가 간의 경쟁은 심화되었고,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국가와 기관 차원의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화 사회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김정훈·박정민, 2012; 박영휘, 2011; 최준규, 2008). 또한 대학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기관은 세계를 무대로 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놓이게 되었으며,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내 교육, 연구, 행정의 모든 분야는 국제화의 영향을 받으며 개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국제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사회적 흐름과 논의의 범주에 따라 그 의미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엄상현·변기용, 2012). 그러나 선행연구(김경근 외, 2008; 이병식, 2006; 최준규, 2008; Knight, 2003)를 종합하면,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제공되는 교육·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학문적 역량과 가치관의 발달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OECD(2004)에서는 고등교육 국제화를 두 가지 하위 개념으로 제시하는데, 대학의 교육과정에 국제적 측면을 도입하는 ‘학내 국제화’ 측면과 ‘국경을 넘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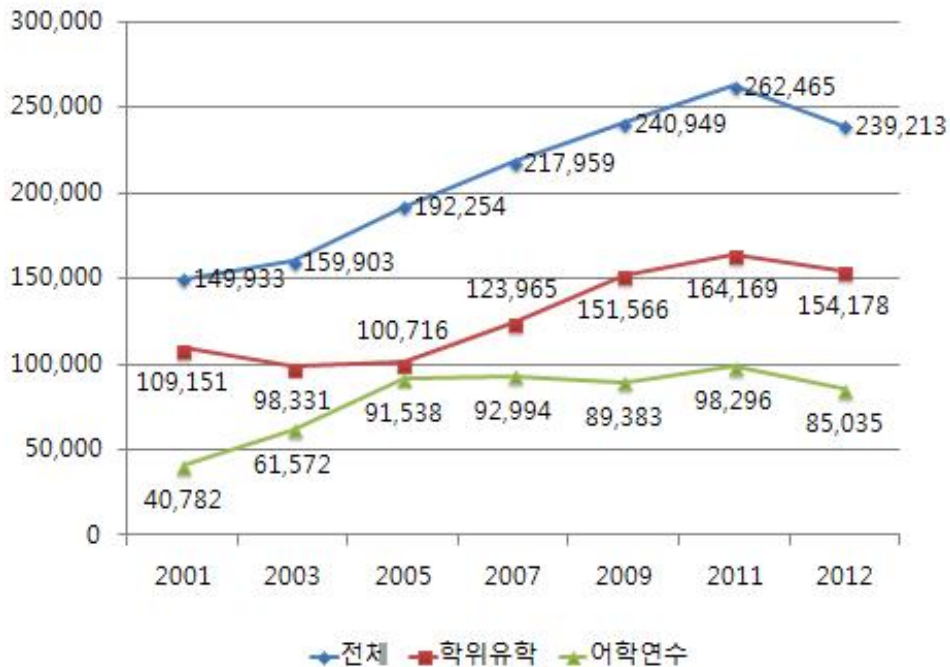


루어지는 국제화 활동'으로 학생 및 연구자 이동, 교육 프로그램 및 (대학)기관의 이동은 후자에 포함된다(엄상현·변기용, 2012에서 재인용). 한편 Rivza & Teichler (2007)는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화 프로그램을 중요도에 따라 제시하며, 그 중에서 학생이동(Mobility of Students)을 가장 중요한 교육 기회로 보았다. 학생이동은 학생들의 전인적이고 글로벌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경험으로, 국제적 수준의 경험은 학생들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타문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졸업 이후에도 국제화된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이병식, 2006).

학생이동은 크게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의 이동(outbound)과 외국에서 한국으로 공부하기 위해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이동(inbound)로 구분된다. 1990년대 본격화된 개방화의 흐름과 유학정책의 변화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해외 유학생 수의 급증을 야기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에는 조기유학 열풍과 함께 해외 유학생의 양적 팽창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대학 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과 정부의 국제화 대응 방안이 마련되며,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유현숙, 2004; 최준규, 2008).

[그림Ⅱ-1]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국외 한국인 유학생의 추이 변화를 나타내며, 2001년 149,933명이던 한국인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239,213명으로 1.6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2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239,213명의 유학생 중에서 학위유학생은 154,178명, 어학연수생은 85,035명을 차지한다. 또한 2001년 109,151명이던 학위유학생은 2012년 154,178명으로 1.5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 2001년 40,782명으로 집계된 어학연수생은 2012년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지만, 외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의 등 국제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증대는 비교적 단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어학연수 프로그램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의 참여 또한 크게 증가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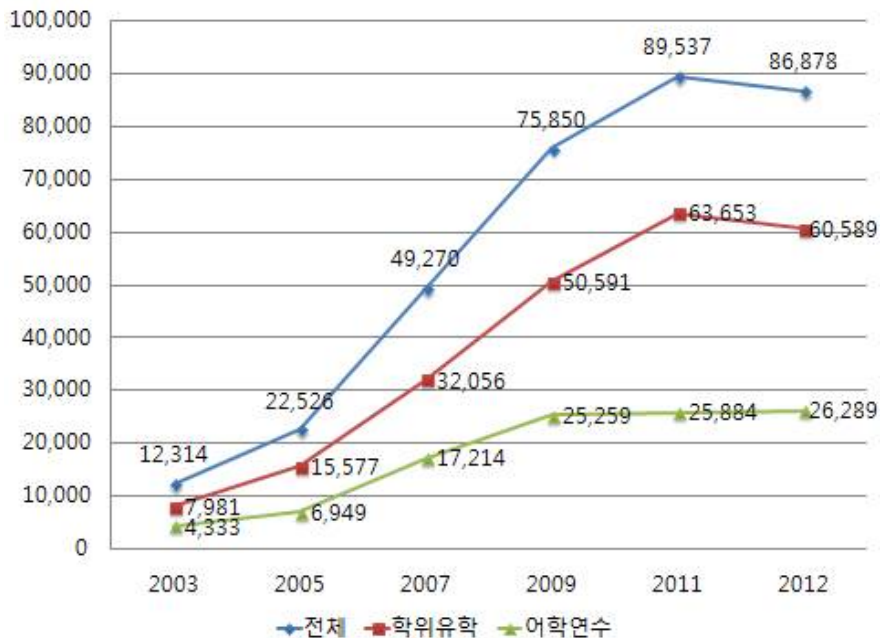


[그림 II-1] 국외 한국인 유학생 추이 변화(2001-2012년)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한편으로 [그림 II-2]는 2003년에서 2012년까지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추이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12,314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7년에는 49,270명으로 4배 증가, 2012년에는 86,878명으로 8배 가까운 증가를 보인다. 2012년에 24만 명에 이른 국외 한국인 유학생 수와 비교해서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2000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 교육 국제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2004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10년까지 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2012년에는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20년까지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국제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II-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추이 변화(2003-2012년)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국제 학생이동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국제화는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타국, 타문화 사람과 교류하는 계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그동안 고등교육 국제화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어왔다. 또한 국내외 유학생의 이동 모두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 제고와 효과적인 교육 경험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어 왔다는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한편 최근 한국인 유학생의 이동(outbound)은 그 추이가 변화하고 있다. 2000 대에 들어서며 각 대학은 해외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위 유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여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경험이자, 국제화 된 인재 양성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으로 대표되어 오던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마련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해외교류 프로그램으로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단지 학점만을 취득하기 보다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대학들은 우수한 해외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고 기존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의 대학과도 교류협약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더불어 학생이동을 통한 국제화 증진을 위한 국내 대학의 주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김양선, 2009; 박세일, 2009; 이기정, 2008).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2년 32,196명의 학생이 외국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학생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학생이동을 통한 대학생의 발달을 살피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대학의 국제화 전략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한편으로 복수학위과정,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학생이동 프로그램은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고 있다(박영휘, 2011). 최근에는 각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른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노력이 더해지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증감 추이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제화 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은 학생이동을 통한 국제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목해 왔으며, 최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 대학과의 교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지속되고, 고등교육 국제화 현상 내의 학생이동, 특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이동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때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현황과 목적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의 관심과 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국내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외 학생에 대한 정보는 대학알리미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거의 유일하다.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의 대항목 중 ‘학생’ 분류에서 ‘외국 대학과의 교류 현황’이란 소항목으로 관련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표 II-1>의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42,500명이었던 총 교류인원이 2012년에는 47,844명, 2013년에는 54,026명으로 꾸준히 늘어남으로써 2년간 약 1.2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대학으로 파견되는 국내 학생 수(파견 학생 수)와 국내 대학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학생 수(유치 학생 수)를 합한 수치로서 전체적으로 외국대학과의 교류 현황이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의 파견 학생 수와 유치 학생 수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²⁾

<표 II-1>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 추이

	파견 학생 수	유치 학생 수	계
2013	32,196	21,830	54,026
2012	31,185	16,659	47,844
2011	27,897	14,603	42,500

출처: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 (<http://www.academyinfo.go.kr>)

<표 II-2>에서는 2012년과 2013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 학생들이 주로 파견된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중국, 미국, 필리핀, 일본, 캐나

2) <표 II-1>에서 제시하는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 추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학’으로 분류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사례연구대상인 K대학과 같은 범주로 분류되는 4년제 일반대학의 교류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초점과 일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 순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파견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가까운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 또는 영어권 국가로의 참여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에는 프랑스, 2013년에는 독일로 여섯 번째 국가의 순위가 변동되었지만 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가 뒤를 잇고 있어 유럽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확인할 수 있다. 각 대학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와의 교류협정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 등 아시아 국가 또는 러시아, 멕시코 등의 국가도 교환학생 참여 국가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으로 필리핀이 미국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파견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인상 깊게 살펴볼 수 있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II-2> 국가별 대학 교류건수: 파견 학생 수 (2012-2013)

	중국	미국	필리핀	일본	캐나다	독일	기타	계
2013	7,646 (23.7%)	6,855 (21.3%)	3,597 (11.2%)	2,644 (8.2%)	1,180 (3.7%)	1,000 (3.1%)	9,274 (28.8%)	32,196 (100%)
2012	7,951 (25.5%)	7,343 (23.5%)	2,987 (9.6%)	2,235 (7.2%)	1,201 (3.9%)	1,035 (3.3%)	8,433 (27.0%)	31,185 (100%)

출처: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 (<http://www.academyinfo.go.kr>)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협정을 맺은 대학 간의 일대일 교환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자연히 많은 수의 학생이 파견된 국가인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 국내 대학으로 유치되는 학생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이 그 뒤를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수의 학생을 파견하는 국가라는 점은 한류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해석해 볼 수 있다. 유치 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국내 학생들의 파견 수에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이는 국내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국, 캐나다, 유럽 지역으로의 교류



는 방문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일방적인 파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파견 학생 수와 유치 학생 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주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3> 국가별 대학 교류건수: 유치 학생 수 (2012-2013)

2013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대만	기타	계
	5,594 (25.6%)	5,123 (23.5%)	2,302 (10.5%)	895 (4.1%)	871 (4.0%)	600 (2.8%)	6,445 (29.5%)	21,830 (100%)
2012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대만	기타	계
	4,754 (28.5%)	3,847 (23.1%)	1,877 (11.3%)	634 (3.8%)	434 (2.6%)	417 (2.5%)	4,696 (28.2%)	16,659 (100%)

출처: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 (<http://www.academyinfo.go.kr>)

국내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목적은 크게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과 국제화 전략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 사례연구대상인 K대학의 경우에도 국제적 이해와 교류 능력을 갖추고 변화를 주도하는 국제화 된 인재 양성을 하나의 교육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하나의 국제화 전략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경험의 기회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대 1년간 정규 학기에 학생을 파견하는 방식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단과대학과 전공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사범대학의 해외교생실습, 경영대학 인턴십, 문과대학의 어학전공 교환학기 프로그램 등 각 학과의 성격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기간도 다양하다. 그러나 국내 교환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며, 단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등교육과 대학생의 발달

대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이론은 크게 심리학적인 접근의 ‘학생발달이론’과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대학효과이론’으로 구분된다. 학생발달이론은 인지발달이나 심리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대학효과이론은 대학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그러나 학생발달이론과 대학효과이론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며, 학생 발달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Weidman, 2006).

가. 학생발달이론

학생발달이론은 학생의 발달을 개인의 자연적인 성장과정으로 보며, 개인의 내부적인 변화에 주목한다. 크게 심리-사회발달이론(Psycho-social development), 인지구성이론(Cognitive-structural theories), 유형론(Typology models), 개인-환경 상호작용론(Person-environment interaction theories)이 학생발달이론에 해당된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심리-사회발달이론은 연속적인 발달 과업(developmental task)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Erikson(1968)의 발달이론과 Chickering(1993)의 7가지 학생 발달 과업은 대표적인 심리-사회발달이론에 속한다. 각 개인의 삶은 나이를 먹거나 사회적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아 여러 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인의 발달은 심리사회적,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고 이전 단계의 발달은 다음 단계의 발달과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성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발달 순서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다. 또한 각 단계의 변화와 발달은 결국 개인의 종합적인 수준 발달을 향해 나아간다는 입장이다(Rodgers, 1989). Chickering & Reisser(1993)는 대학생활에서 학생들이 겪게 되는 7가지 발달과업으로 유능감 성취(Achieving competence), 정서 관리(Managing emotions), 자율성의 성립을 통한 상호의존(Moving through



autonomy toward interdependence), 대인관계 발달(Developing matur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정체성의 확립(Establishing identity), 명료한 인생목표(Developing purpose), 통합능력(Developing integrity)을 제시하였다. 유능감 성취와 정서 관리, 자율성의 성립을 통한 상호의존, 대인관계 발달은 정체성의 확립 이전 단계로써 각 과정이 동시에 발달을 이루기도 한다. 정체성의 확립 이후 그를 바탕으로 인생의 목표와 통합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며, 7가지 발달과업 중 ‘정체성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각 개인이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생활방식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 이후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스스로의 과업을 해결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인지구성이론은 Perry(1970, 1981)의 인식발달이론과 Kohlberg(1971)의 도덕성 발달이론이 대표적이며 학생들이 경험을 인지하고 순차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달을 이룬다고 본다. 따라서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스스로의 사고 체계에 따라 받아들이고 구조화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았으며, 풍부한 경험은 학생이 지식을 습득하고 인지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인식구성이론은 심리-사회발달이론과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서, 학생의 인지적 발달과 더불어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두 이론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했다(Chickering & Reisser, 1993). King & Baxter(1996)는 두 이론의 결국 하나의 발달 과정을 구성하는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Pascarella & Terenzini, 2005에서 재인용).

Perry(1970, 1981)의 인식발달이론은 학생들이 가치와 책임의식 등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지 구조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크게 이분법적 사고(Dualism), 다면성(Multiplicity), 상대성(Relativism), 상대성의 확신(Commitments in relativism)이란 네 단계에 따라 지식과 가치의 상대성을 인식한다고 보았다. 한편으로 Kohlberg(1971)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인지적 구조의 발달에 따라 도덕적 판단력 또한 발달한다는 입장으로 총 6단계의 도덕적 발달 단계를 설정하고 개인의 도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인지구성이론은 위계적인 단계에 따라 이전 단계의 발달이 다음 단계의 발달



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발달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전 단계로 역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발달 단계는 특정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이 무엇을 알고 인식하게 되었는지 보다는 어떻게 의미를 구조화했는지에 더 초점을 두고 살핀다. 새로운 정보나 경험과 같은 자극에 대해 학생들은 ‘동화’ 또는 ‘적응’의 반응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되며, 이러한 발달의 과정은 의미의 구조화와 재구조화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환경 상호작용론은 학생 개인이 환경조건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발달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대학 생활을 통해 교류하는 사람이나 대학 환경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심리-사회발달이론이나 인지구성이론이 학생들의 발달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개인-환경 상호작용론은 학생이 변화와 발달을 이루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Astin, 1985).

나. 대학효과이론

대학효과이론은 학생 개인의 내적 발달 보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의 변화에 더 관심을 두는 이론이다. 학생 개인의 배경(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 교육기관의 특성(규모, 교육목표, 자원 등), 환경(학문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분위기) 등과 같이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인이 학생들의 대학 생활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발달을 이끌어내는지에 주목한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또한 학습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모든 경험이 대학생의 인지적, 심리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관심을 두고, 학업 성취와 인지발달, 대인관계능력, 자아개념의 형성 등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대학효과란, 대학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대학 이외의 영향을 제외한 순수효과를 의미한다(이병식 외, 2012). 대학생이 경험하는 모든 변화가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효과는 대학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나 다른 유형의 대학에 다닌 학생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학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학 간 차이 효과(between-college effects)’와 동일한 환경 내에서도 학생 개인의 참여 활동과 경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학 내 효과(within-college effects)’ 차원에서 학생들의 변화와 발달을 살펴볼 수 있다(Astin, 1993).

Astin(1993)이 제안한 투입-환경-산출(Input-Environment-Outcome: I-E-O) 이론은 대학효과이론의 토대를 이루며,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의 학생의 특징을 ‘투입’으로, 대학에서의 학생의 경험을 ‘환경’, 투입과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산출’로 구성된다. 대학효과는 대학생이 경험한 대학 내 활동과 교육을 통한 결과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학생의 노력과 태도 또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후 Tinto(1993)에 의해 제안된 모형은 대학효과를 이론적으로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였으며(이병식 외, 2012), 대학생이 휴학이나 자퇴 등의 학업중단에 이르는 과정을 개인의 특성과 대학 경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Tinto의 모형은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학 내 프로그램 마련을 구상하려는 대학 행정가에게도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Tinto의 모형은 대학에서의 경험이 학생에게 주는 영향을 살피는 것에 비해서, Pascarella(1985)는 학습성과와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 포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을 통해 Pascarella는 학생의 인지발달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생의 노력정도와 교수와의 상호작용,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학생의 개인적 배경, 대학의 조직적 특성과 환경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Weidman(1989)의 이론은 학생들이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거나 대학의 미션을 따르는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의적 영역의 발달(가치관, 목표, 직업선택)에 주목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각 단계에서 부여받는 역할에 따라 혹은 사회적 소속 집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학에서의 경험은 학생들이 대학 조직에 적응하고 배우는 과정 자체로, 또한 대학 졸업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졸업한 이후에는 대학생시절과 같이 학습과 배움의 환경이 유지



될 수 없지만, 대학 생활을 통해 형성한 개인의 가치관과 같은 역량이 학생 개인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 국제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이 경험하는 대학 환경이 해외 협정대학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학생의 경험을 둘러싼 매커니즘은 대학효과이론이 제시하는 대학에서의 경험 모형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 절에서 살펴본 대학효과이론을 참고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3.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대학생의 발달

대학의 국제화와 학생이동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국제화 전략의 하나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진행된 연구로는 학생들의 참여 동기와 문화적 측면의 발달에 주목한 박소진(2010)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본 양성혜(2007)와 Ahn(2011),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 연구(신태진, 2011)가 대표적이다.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살피고자 한 연구(박상옥, 2003; 조재옥, 2005)도 진행되었지만, 영어교육이라는 좁은 틀에서 해외 연수를 바라보았기에 학생들의 경험과 발달을 폭넓게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중 박소진(2010)은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경험을 분석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재인식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주목하였다. 미국에서 해외연수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학생들은 미국 문화를 경험하며 경쟁적이고 치열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며, 스스로의 생각을 여유롭게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해외에서의 경험은 학생들이 지속적인 글로벌 이동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욕망을 강화하는 계기로서, 학생들은 진학이나 취업, 이민 등의 방법을 통해 이동을 고려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기존의 관련 연구가 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만 주목해 왔던 것에



비해서 학생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양성혜(2007)는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한 학생들이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였고, Ahn(2011)은 스웨덴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학생들이 전공과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루었다. 특히 Ahn(2011)은 원활하지 않은 학교 행정과 과목 선택 기회의 제한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학업 단절을 겪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태진(2011)은 해외 학술교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행정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도상의 문제로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관행정부서의 조직 정비와 강화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연구는 박소진(2010)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경험이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아오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경험과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학생이 소속된 전공과 국가 특성까지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학생발달에 영향을 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효과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 전략 탐색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 동향을 살피며 대학생 발달 연구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과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가. 학생발달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효과

학생발달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간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초기 연구는 학생들이 협정교에서 수학하며 외국어 능력과 전공 학습 측면에서 향상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Teichler, 1996). 하지만 점차 참여 학생들에게서 문화적 역량 측면의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이후 연구는 학생들의 문화적 태도와 인식 변화에 주목해왔다(Choi, 1997; Deveney, 2005; Teichler, 2004).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경험과 영향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여 경영학과 학생(Tuleja, 2008)과 사회복지학과 학생(Lindsey, 2005)을 대상으로 발달을 살피고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유형과 기간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해외교생실습(Cushner & mahon, 2002)이나 단기 프로그램(Chieffo & Griffiths, 2004; Lewis & Niesenbaum, 2005)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와 학생 발달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연구(Fry et al., 2009; Paige et al., 2010; Twombly et al., 2012)는 학생 발달 양상을 살피보기 위해 문화적 역량과 학습태도, 직업에의 영향, 사회·심리적 성장 등으로 기준을 나누었고, 본 절에서는 이 기준을 참고하여 학생발달 측면의 연구 흐름을 살피고자 한다.

1) 문화적 역량

학생들의 교류가 보편화되기 이전, 국가 간 학생이동은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해왔고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유학을 떠나는 방식이 선호되었다. 이에 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동일한 학교 급에서 대학생의 이동을 강조해왔다(Twombly et al., 2012). 본래 소속된 학교에서 받아오던 교육의 흐름이 끊어진다는 한계가 있지만, 문화적 역량을 체득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이다(Teichler, 2004). 따라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문화적 측면의 발달이 클 것으로 기대되었고, 관련 연구의 초점도 이에 맞추어져 왔다.

문화적 역량을 정의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에,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의한 문화적 역량의 개념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주로 인지적, 태도적, 행동적 발달 차원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에서의 학생 변화를 살피고자 하였다(Deardorff, 2006; King & Baxter, 2005).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교환학생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과 비참여 학생 간의 성취를 비교하는 방식의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Bakalis & Joiner, 2004; Clarke et al., 2009; Gonyea, 2008; Stephenson, 1999).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제한된 규모의 실험집단에 대해 단기간



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제시할 뿐, 다른 학생들에게도 보편화해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장기간에 걸친 학생의 변화와 성취를 살피기 위해 Paige 외(2009)의 연구가 이루어져, 교환학생 참여 경험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발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고, 학생 개인의 발달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개별성을 살피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Dolby, 2004, 2007)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발달성으로 문화적 역량이 주목받아 왔음에도, 문화적 역량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Twombly 외(2012)는 현재까지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학생 발달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문화적 역량을 인지적 발달, 사회심리적 발달, 대인관계 발달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정의한 문화적 역량의 개념을 종합할 때,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인지적 발달(cognitive development)’,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과정에서 느끼는 태도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발달(psychosocial development)’,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돕는 ‘대인 발달(interpersonal development)’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문화 인식 태도, 문화적 감수성, 지식 습득과 소통능력 함양 등 문화적 역량을 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타문화, 타인종, 타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줄이고 이해를 높여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복합적으로 문화적 역량이 발달한 변화 모습을 보였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참여 학생과 비참여 학생 간의 비교 연구(Bakalis & Joiner, 2004; Gonyea, 2008)는 참여 학생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수용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다른 나라의 정책이나 국제적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다.

이는 나아가 자신의 국가를 비판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스스로의 정체성과 세계사회에서의 책임감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



다(Dolby, 2004, 2007).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서도 문화적 역량 측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Chieffo & Griffith, 2004), 학교에만 머물렀던 학생들이 학업적인 성취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비해 교환학생에 참여한 학생들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등 더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으로 Stephenson(1999)은 칠레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한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지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적 인식과 가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피고자 했다. 기존에 선행된 연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문화적 역량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던 것에 비해, Stephenson(1999)의 연구는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환경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현지인과의 사고방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았으며, 낮은 수업 환경과 교수학습 방식, 성적 이슈(sexual issue)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은 학생들이 칠레에서 적응하고 현지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페인어권에서 교환학생 경험을 한 한국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른 양성혜(2007)의 연구와 유사하게 스페인어권의 개방적인 문화가 학생들의 적응과 문화 수용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Stephenson(1999)은 교환학생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학생들이 대체로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였으며 칠레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음을 강조한다. 이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무조건 문화적 역량의 변화와 발달을 이룰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발달을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적 특성이나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 또는 현지에서의 지원이 뒷받침될 때, 학생 발달 측면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외국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놓인 학생들은 본래 자신이 생활해왔던 환경과 비교하며 새롭게 세상을 인식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Dolby(2004, 2007)의 연구는 호주 등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한 미국학생들이 미국인으로서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911테러 이후 학생들은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서 자신이 평가받을 것을 두려워하였고, 타문화 학생들과의 교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교류의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나아가 스스로에게 잠재되어있는 미국인으로서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마주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발달에 관한 연구는 경영학, 사회복지학 등 특정 전공 분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Clarke et al, 2009; Lindsey, 2005; Tuleja, 2008). 세계 시장의 흐름과 특징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한 경영학이나 타문화, 타인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더불어 상대방을 깊이 이해해야 하는 사회복지학의 전공 특성을 고려할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문화적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서 주목받았다.

Clarke 외(2009)는 교환학생을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 및 포용력, 의사소통 능력, 문화 개방성, 문화적 감수성 등 문화적 역량의 측면에서 변화를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대학 내 경영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 학생과 비참여 학생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향상된 문화적 역량은 국제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Lindsey(2005)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타문화에 노출되고 다양성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넓혀 결과적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하는 사회복지학의 특성에도 적합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발달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Lindsey(2005)의 연구는 개방적 사고, 문화적 감수성, 다름에 대한 이해 등을 문화적 역량을 살피기 위한 기준으



로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Paige 외(2009)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을 살피는 연구가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50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한 6000명의 학생을 대상(학부, 석사, 박사 과정 포함)으로 교환학생 경험이 학생의 글로벌 역량과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하였다. 정치·사회 참여(civic engagement), 지식 생산(knowledge production), 봉사기부참여(philanthropy), 사회적 주인의식(social entrepreneurship), 생활방식의 변화(voluntary simplicity)의 5가지 척도를 글로벌 역량을 살피기 위한 요소로 설정하고 이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이 발달을 이루어왔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환학생 참여 경험을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활동으로 꼽았으며, 참여 이후 자신의 진로 계획이나 전공을 바꾸는 등의 변화를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2) 학습 태도

학습태도(attitude of learning)란 학습과 관련된 태도 중에서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 생기는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의미하며, 학습에 있어서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양태나 자세를 말한다(Hills, 1986; Kuhl, 1992).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학습 태도는 전공 학습에 대한 성취(Mckeown, 2009) 뿐 아니라 수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Gonyea, 2008; Teichler, 2004), 교수와의 관계 형성 측면에 걸쳐 학생들의 발달(Zhou et al., 2008)을 살피고자 하였다.

Teichler(2004)는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취를 살피는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문화적 경험, 외국어 향상 기회, 다양한 경험 등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지만 상대적으로 학업적 성취에 대한 만족은 미약하다고 밝혔다. 더 나은 교육의 질은 추구하는 ‘vertically mobile’과 달리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horizontally mobile’이라는 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학생들은 더 나은 수업을 받고 학업 측면에서 성



장하겠다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겪는 문화적 경험과 전인적 성장의 기회들이 종합적으로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은 학습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태도와 문화적 경험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환학생 참여 경험이 학습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결과로 도출한 Gonyea(2008)의 연구는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3학년 학생들의 응답을 1학년이었을 때의 응답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학생들이 심화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고, 심화학습(Deep learning)에는 성찰학습(reflective learning)과 고차원학습(higher order learning), 통합학습(integrative learning)이 포함된다. 성찰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새롭게 배운 지식과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연결하며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고차원학습을 통해서 현상과 개념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문제와 결합해서 사고하는 능력을, 통합학습으로는 다양한 학습 자료와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사고하는지에 살필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는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특히 성찰학습과 통합학습 측면에서 학습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보였으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습한 내용을 본교에 돌아온 이후에도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Zhou 외(2008)의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지적, 정서적, 심동적 영역으로 반응을 구분하고 사회문화적, 심리적 성과 측면에서 학생들의 변화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 때 정서적 측면에서 현지학생과의 교류는 교수자와의 교류와 다른 성격을 지니며, 학생들이 현지 학생 이외의 교수자와 어떠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학생의 학습적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유학생의 확대와 더불어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서 학생과 교수자가 서로의 문화에 따른 학습 과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며, 나아가 행정적으로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서로의 문화와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될 때, 학습 환경에서



도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3) 직업 능력 관련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학생들의 직업 능력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Norris & Gillespie, 2009; Paige et al., 2009; Wiers-Jenssen, 2008)는 학생들의 국제화 업무 선호도와 국제화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밝혔다. Norris & Gillespie(2009)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상당수의 학생이 국제화 관련 업무에 관한 흥미를 강화하고 외국어 능력 및 업무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국내에서만 교육 받은 학생에 비해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 될 수 있었고 외국에서의 취업 기회나 국제 관련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큰 영향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국제화 관련 문화적 역량과 기술, 전공 학습 능력을 발달시키고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강조하였다.

Paige 외(2009)는 50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한 6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환학생 경험이 학생의 글로벌 역량과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지식 생산, 사회적 주인의식 등 글로벌 역량과 더불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한 활동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직업 역량의 변화가 있었다.

Wiers-Jenssen(2008)은 해외 유학생과 교환학생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이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고등교육 연구기관(Norwegian Institute for Studies in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NIFU)에서 조사한 2,000여 명의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외국 대학 졸업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 졸업자, 해외 경험이 없는 국내 졸업자의 졸업 후 취업 형태와 업무의 국제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해외 취업의 경우 해외 대학 졸업자가 교환학생 경험자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기업 중에서 국제화 업무 담당자로의 취업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전 학업 성취가 높은 학생일수록 해외 유학을 떠날 가능성이 높고 유학시절 향상된 외국어 실력과 국제적 태도와 문제 해결력 등을 높이 인정받아 외국에서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내 취업의 경우 국제적 역량 외에도 능력과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 부가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국제 경험이 있는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 더 유리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외 경험이 있는 국내 졸업자들도 외국 취업의 기회를 눈여겨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외국 대학 졸업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직업적 국제화 역량 강화 측면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ERASMUS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유럽 지역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이 신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의 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을 기대하며, 직업에 영향을 주는 세계화 시대의 국제화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4) 사회·심리적 성장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우는 등 사회·심리적으로 성장하여 전인적 발달을 이루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Fry et al., 2009; Paige et al., 2010; Twombly et al., 2012)도 진행되었다.

Fry 외(2009)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미국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발달(career development), 학업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국제화 관련 지식과 기술(knowledge and skills)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basic value and world view)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하였다. 혼합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684명의 설문조사 응답자와 53명의 면담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면담결과로 개인의 세계관이나 삶의 철학 등 심층적인 변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가장 의미 있는 변화 경험을 묻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들은 독립심 향상(9.0%), 자신감 향상(8.7%), 전반적인 개인적 성장과 발달(5.7%)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면담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어떤 문제 상황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긍정



적으로 생각했다. 특히 낮은 상황이나 새로운 도전 앞에서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으며, 매 순간의 삶을 즐기고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감과 독립심이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Paige 외(2010)는 미국 내 22개 교육 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가한 6,378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중 63명에게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경험은 자신감과 독립심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문화적 역량이나 지식 습득 이외에도 학생들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나아가 정체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 하는 등 전인적인 발달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Twombly 외(2012)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학생 발달의 한 유형으로 사회·심리적 발달을 제시하며, 정체성 발달, 도덕성과 가치관 발달과 함께 자율성 등 전인적 발달이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을 전인적 발달도 고려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 전략

학생 발달 측면을 살피는 것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전략을 마련하고자 관련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주로 프로그램의 한계점과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살피기 위한 연구(Sowa, 2002)가 수행되었으며, 프로그램참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Bakalis & Joiner, 2004; Doyle et al., 2010; Gonyea, 2008)과 참여 학생과 비참여학생의 특징과 성향을 분석하여 참여 기회의 확대와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Stroud, 2010) 등이 이루어져 왔다.

한편 글로벌 인재 양성의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학생의 교환학생 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과 어



려움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행정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Lewis & Niesenbaum, 2005; Relyea et al., 2008). 또한 전공과 프로그램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발전 전략을 통해 교육적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Chieffo & Griffiths, 2004; Cushner & Mahon, 2002)도 진행되어 왔다.

Sowa(2002)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 살피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상 한계점을 짚어보며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크게 1학기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total immersion), 학교차원의 지원이 병행되는 프로그램(protective studies), 여행 성격의 단기 프로그램(tour model))로 구분하였으며, 학생과 대학 차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보았다. 처음에는 지식을 교류하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점차 학생들의 태도와 직업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다른 국가 친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차세대 리더로서 대학생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 비용의 부담, 전공 학습에 대한 단절 가능성, 참여 기간, 대학 간의 연계 부족, 대학 간의 강의 수준 차이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미국 내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한국 대학의 교환학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신태진(2011)의 연구에서도 논의된 점으로, 수업을 원활하게 듣지 못한 학생들은 교환학생제도를 학술 교류 측면에서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교육적 목적이 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학생들은 학년 수준에 맞게 적합한 전공과목을 제때에 듣지 못해 학습 과정(academic cycle)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Sowa(2002)는 각 대학의 강점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각 대학이 지닌 미션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체류 대학과 본교 간의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업에서도 학습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학과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디자인이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문화 이해, 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등의 지원방안도 함께 디자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참여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Bakalis & Joiner, 2004; Doyle et al., 2010; Gonyea, 2008)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Gonyea(2008)의 연구는 교환학생에 참여한 학생들의 발달을 살피는 것과 동시에 참여 학생의 배경 변인을 통해 본인의 성적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신입생 시절 학교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일수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에 돌아온 이후의 학교생활에서도 더 좋은 성취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교수와 함께 공유하고 돌아온 이후의 학교 수업에서도 교환학생 경험에서 배운 내용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며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비참여 학생들도 함께 경험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참여 학생들의 학습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공 학습 단절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본교에 돌아온 이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역 문화충격(reverse culture shock)’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또한 참여 학생들에 대한 교수와의 개별 면담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적응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환경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Bakalis와 Joiner(2004)의 연구는 호주의 한 대학에서 international trade를 전공하는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의 성격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개방성(openness)과 포용성(tolerance)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참여 학생과 비참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환학생 참여 경험의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핀 부분에서는 교환학생에 참여한 학생들이 교류와 친구 사귀기(friendship/contact), 전인적 성장(personal development)측면에 대한 인식이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비참여 학생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현지에서 교류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비참여학생들은 가족이 그리울까봐 두려워서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개방성과 수용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성격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학



생들의 성격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또한 현지에서의 생활과 교류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Relyea 외(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데, 학생들은 국제적 교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인식된 가치(perceived value)를 얻기 위해 국제 교류 경험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감수하고 경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인식되는 대표적 가치에는 타문화 경험을 통한 문화적 지식의 습득과 태도 변화, 인식의 변화가 속한다. 이는 학생들이 감수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감내하고 참여를 선택하게 하며, 학생들의 성격이 프로그램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여전히 한정된 일부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보아, 학생들이 부담감을 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고려하게 한다.

최근에는 기존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학생에게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Lewis & Niesenbaum, 2005; Twombly et al., 2012)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짧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Chieffo & Griffiths, 2004)를 통해서 한 달 가량의 짧은 프로그램도 충분히 학생의 발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원책의 마련이나, 학업 측면 보다는 문화적 참여 측면에서 프로그램 성격을 보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Lewis & Niesenbaum(2005)의 연구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같이 충분한 효과를 느끼고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전략을 제시하였다. 코스타리카로 교환학생을 떠난 2주간의 짧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충분한 학술적 지원과 지역 공동체 기반의 프로젝트 기회 제공, 지역사회봉사의 참여를 통한 충분한 교류를 제공받으며 전공 이외의 과목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학제 간 연구에의 관심, 지속적 해외경험의 추구, 세계화에 대한 인식 증대와 같은 충분한 변화를 보였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차원의 충분한 지



원과 구상이 뒷받침 된다면 장기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학생들의 발달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Chieffo & Griffiths(2004)의 연구는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문화적 태도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피며, 단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제화의 추세와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학생교류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단과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도 한 달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역량(global awareness)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의 변화를 살피고자 하였는데, 여기에는 문화적 인식, 개인적 성장과 발달, 세계적 상호작용의 이해, 지형적, 언어적 기능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그 결과 단기 과정으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시간적 부담 없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더 편하게 학생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방식 보다는 봉사활동을 포함하거나 프로그램 구성의 성격에 변화를 주어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변화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양한 전공과 파견 지역의 성격에 따라 학생들의 경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전공별 세부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학생들의 경험과 변화를 살피는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보안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Twombly 외(2012)는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 측면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미리 예상된 목표 달성과 발달 성과가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학교 차원의 적절한 운영 지원과 평가 절차를 통해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환학생 참여 경험을 통해 문화적 역량의 향상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 단정 짓지 말고,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프로그램의 의도한 목표와 실제 성과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단편적인 경험 자체의 성과 측정에 머물지 않고, 대학 교육을 통한 학생의 발달이라는 큰 틀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가 갖는 의미를 고려할 필



요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얼마나 많은 학생이 참여했는지 통계적인 결과에 주목하기 보다는 어떤 학생이 참여했는지, 참여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는지 고려하며 학생의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노력 또한 대학차원의 행정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경험과 그로 인한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가 손에 꼽힌다. 그러나 국외 연구는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도 발달 측면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전략에 관해서도 전공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교육 분야의 큰 화두로 떠오른 시대에,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그 중요성을 점차 더해가고 있다. 교육기회로서 중요성을 고려해보아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기대한 바대로 성취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가능성을 제시한 국외 연구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국내 대학생의 특성과 대학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국제 교류 경험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목표와 경험, 그리고 참여 경험이 학생들의 발달에 주는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K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이 변화와 발달에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방법(Case Study)을 적용하였고, 본 연구에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경험은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환경 요소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인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서의 인식과 태도, 학생들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접근 방식이 적합하다(Marsick & Watkins, 1999). 본 연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을 살피고 경험으로부터의 발달과 변화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접근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선행된 교환학생 경험과 성과,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외국어 능력, 문화적 수용 능력과 같이 국제화된 인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능력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상관정도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박상옥, 2003; 조재옥, 2005). 이러한 연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동기를 바탕으로 참여를 결심하고, 참여 기간 동안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러한 경험이 그들의 발달에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핵심적 경험과 그 의미 형성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경험과 의미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경험을 살피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례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경계가 명확한 단일 사례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에서의 현상을 다룰 때 주로 사용된다(Yin, 2009). 본 연구는 K대학 소속 학부생으로 미국, 캐나다 또는 유럽 지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이라는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며, 교환학생 참여 경험은 개인과 환경 차원의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성을 띤 사례이기에 질적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이 적절하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경험을 살피고, 변화와 발달을 중심으로 하여 교환학생 참여 경험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례연구 대상 대학

K대학은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로서, 교육 분야와 연구 분야의 국제화를 통한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학교 차원의 국제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K대학은 세계화의 패러다임에 걸맞은 글로벌화 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세계 우수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국제 학술교류 활동을 통해 대학의 국제화에 앞장서고자 노력해왔다.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외국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49개국 395개교와 협정을 맺었으며, 캐나다의 UBC, 호주의 그리피스대학, 영국의 런던대학, 중국의 인민대학 등에 파견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반드시 1학기 이상 해외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7+1’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교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은 국내 대학



의 대학개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K대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K대학은 협정교와 학생을 일대일로 교환하는 개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외에도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영어권 대학에 학생을 보내는 방문학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K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Student Exchange Program)과 방문학생 프로그램(Visiting Student Program)에 참여한 학생 수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K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연도 종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SEP	578	662	793	805	857	973	883
VSP	390	336	331	229	213	111	181
합계	968	998	1,124	1,034	1,070	1,084	1,064

출처: K대학 국제처

<표 III-2>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방문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미국과 캐나다, 유럽 지역을 주로 선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해 K대학에서 교류 협정을 맺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 75개교, 캐나다 17개교, 유럽 127개교이다.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체 학생의 약 70%가 해당 지역으로 파견되고 있다.



<표 III-2> K대학의 주요 국가 교환학생 파견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미국	317	327	295	296	279
캐나다	146	102	105	102	86
유럽	327	279	396	379	353
합계	790	708	796	777	718

출처: K대학 국제처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K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한 학기 이상 K대학을 통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다. 특히 K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파견되는 지역인 미국, 캐나다, 유럽지역을 다녀온 학생으로 연구 참여자의 선정 범위를 좁혔다. 또한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에 K대학에서도 한 학기 이상 학교생활을 하여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의 생활을 비교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K대학 국제처의 도움을 받아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 인터뷰 요청 메일을 보냈고, 자진해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총 16명의 면담 대상자 중 미국에 다녀온 학생은 3명이었으며, 캐나다 5명, 유럽 8명(스웨덴 4명, 영국 2명, 스페인 1명, 네덜란드 1명)으로 학생들의 전공과 학번은 다양한 분포를 이루었다. 연구 참여자 학생들의 정보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연구 참여자 정보

번호	이름 ³⁾	성별	학번	전공	참여시기	국가명	학교명
1	정미	여	2010	경제학과	2012.01(1학기)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2	성주	남	2010	국제학부	2012.09(1학기)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3	윤지	여	2009	영어영문학과	2012.09(1학기)	미국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4	민주	여	2009	정치외교학과	2012.01(1학기)	캐나다	Mcgill University
5	현수	남	2006	역사교육과	2012.01(1학기)	캐나다	Mcgill University
6	정주	남	2008	영어영문학과	2012.01(1년)	캐나다	University of Columbia
7	영경	여	2009	식품자원경제학과	2012.09(1학기)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
8	주형	남	2004	경영학부	2012.08(1학기)	캐나다	York University
9	세라	여	2007	정치외교학과	2012.01(1학기)	스웨덴	Malmo University
10	지수	여	2009	사회학과	2012.08(1학기)	스웨덴	Uppsala University
11	윤환	남	2010	지리교육과	2012.08(1학기)	스웨덴	Uppsala University
12	희연	여	2010	교육학과	2012.07(1학기)	스웨덴	Uppsala University
13	혜진	여	2010	국제학부	2012.02(1년)	영국	University of Bermingham
14	아름	여	2010	영어영문학과	2012.08(1학기)	영국	University of Nottingham
15	송이	여	2010	서어서문학과	2012.09(1학기)	스페인	University of Pompeu Fabra
16	지섭	남	2005	경제학과	2012.09(1학기)	네덜란드	VU Amsterdam

3)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3.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유현숙 외(2010)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을 위해 제시한 질문을 참고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경험과 경험을 통한 발달을 살펴보기 위한 면담 질문지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프로그램 경험을 수업 활동, 수업 외 학습활동, 아르바이트 활동, 여가 생활, 학교의 지원, 대인관계로 구분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또한 K대학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귀국한 학생들에게 교환학생 경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학생들이 제출한 교환학생 경험보고서를 읽으며 면담 질문지에 추가 질문을 포함하는 식으로 보완하였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면담 질문지의 구성 순서와 세부 질문과 관련하여 수정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최종 면담 질문지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참여 동기 및 목표, 두 번째는 준비기간 활동 및 목표, 세 번째는 프로그램 경험(거주형태 및 생활, 수업 활동, 수업 외 학습활동, 아르바이트 활동, 여가 생활, 대인관계, 차별경험, 교환학생에 대한 현지 학교의 지원), 네 번째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영향(외국어 능력, 학습태도, 문화적 능력, 상대국가에 대한 인식 및 이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생활방식/사회참여 및 기여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도, 졸업 후 진로 선택과 경로, 개인적 성장),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로 영역을 나누어 면담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과 그로인한 영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묻기 이전에 전반적인 경험을 통틀어 가장 인상에 남는 점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며, 학생들이 핵심적인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질문지의 큰 구성은 유지하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질문은 면담 과정 중에 수정 또는 삭제되거나 더해졌다. 면담 질문 내용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면담 질문내용

구분	질문 내용
연구참여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학과, 학년(학번) • 교환학생 참여 국가, 학교, 기간
참여 동기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동기 • 참여 국가 선택 이유 • 대학 입학 전, 후의 해외 경험 및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
준비 기간 활동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 활동 • 떠나기 전 학교에서 제공한 지원의 도움여부 • 교환학생 참여기간 동안의 목표와 부합된 정도
프로그램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형태 및 생활 • 수업 활동 • 수업 외 학습활동 • 아르바이트 활동 • 여가 생활 • 대인관계 • 차별경험 • 교환학생에 대한 현지 학교의 지원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능력 • 학습태도 • 문화적 능력 • 상대국가에 대한 인식 및 이해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 생활방식, 사회참여 및 기여도 •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도 • 졸업 후 진로 선택과 경로 • 개인적 성장(전인적 발달)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돌아온 이후,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 자유롭게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연구 참여자 학생과는 반구조화 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개별면담이 진행되었으며, 면담 시간은 평균적으로 50분에서 60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과 연구 내용의 활용 방안, 녹음과 전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였다.

면담 과정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학생들에게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내었는지, 본인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경험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살피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느끼기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필요한 학교 차원의 지원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학생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행정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 자료 분석은 코딩을 마친 후 자료를 부호로 분리시켜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유목화하고, 종합하고, 패턴을 찾고 해석’하며 ‘기술하고, 설명하고, 가설을 제기하고 이론을 개발하며, 연구자의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와 연결’시키기도 한다(Glesne, 2006: 장나영,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면담 내용을 전사하였다.

전사 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과 의문점을 메모하고, 추가적으로 면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도 기록하였다. 반복해서 자료를 읽으며 도출한 주제어를 바탕으로 1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1차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 문제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변화와 발달,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경험, 행정적 시사점의 큰 항목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후 대분류 범주 안에서 코딩 자료를 다시 살피며, 특정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소분류 범주를 작성(유목화)하였다. 공통적인 성격을 갖거나 주제가 통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소분류 범주를 작성하였고, 해석의 흐름을 고려하여 자료를 자연스럽게 재배치하였다. 각 코드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해석을 더하는 기술을 통해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고려하며 자료 구성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한편, 전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학생들이 제출한 교환학생 경험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였고, 특히 학생들의 현지 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면담 자료를 분석하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학생의 동의를 얻어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동일한 과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유목화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서술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풍성하게 해석하도록 노력하였다. 범주화의 대분류는 연구결과의 1, 2절로 구성하였고, 소분류 항목은 소제목으로 구성하였다.

질적 연구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도 끊임없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Creswell, 2012). 질적 연구의 신뢰성 검증은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하게 실제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곡하여 표현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분석 자료의 검토를 의뢰하고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제출한 교환학생 경험보고서를 함께 분석하여, 면담 자료를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타난 대학생 발달 양상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 발달을 이끌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수학하고 생활하며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의 모습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학생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한 모습을 유지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서 나타난 발달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학교육의 일환으로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염두에 둔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발달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학생들의 발달 양상은 크게 문화적 태도, 학습태도, 직업과 성공에 대한 인식 전환, 사회·심리적 성장의 네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가. 문화적 태도

1)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는 모두 친구잖아요

학생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체류 국가의 현지인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편견의 대상이었던 사람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었고, 오해를 해소하고 상대방을 친숙하게 느끼게 되었다. 더불어 한국에 돌아온 학생들은 지나가는 외국인에게서도 낯설음보다는 반가운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변화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학생들은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이야



기 해보는 과정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학생이라는 것을 느끼고, 친근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이 학생은 유럽 학생들은 콧대가 높아서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을 안고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떠났지만,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었다. 혜진 학생도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낯설음이 해소되었고, 이제는 친숙한 마음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K대나 K대를 벗어나서 외국인을 보면 뭔가 동질감이 느껴져요 외국인이라는? 그런 게 느껴지고 뭔가 다가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너 어떻게 살만하냐 한국 괜찮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개가 어떤 느낌일지 이해를 하잖아요,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싫을 거고 이런 건 좋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혜진, 국제학부-

특히 학생들은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나 편견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하게 되었으며, 서로의 다름에 대해 개방적인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정미 학생은 원래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두려운 생각에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외국에서 다른 국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 또한 자신의 친구이고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할 동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현재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중국인 이민자 모두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사회적 시선을 불편하게 느낀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 본 경험은 정미 학생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체득할 수 있게 도왔다.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범죄자의 출신 국가라는 이미지로 기억되던 곳이 ‘내 친구의 나라’로 전환되며 타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한 것이다.



옛날에는 네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똑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도 내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별적인 시선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정미, 경제학과-

영경 학생과 주형 학생도 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흑인과 실제로 만나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 어울리는 과정에서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전 약간 흑인들 무서워했거든요. 지하철이나 이런데서 보면, 그런데 이야기 나누어보니까 되게 귀여워요. 흑형 되게 순박하고, 흑인분들 그런 편견도 없어지고 일단 인종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지고

-영경, 식품자원경제학과-

미디어에서만 보던 흑인, 백인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같이 부대끼면서 친구가 되어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제가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주형, 경영학과-

한편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흑인과 같이 한국 학생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는 무슬림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 학생의 경우 특히 무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파견학교에서 무슬림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보았다는 것을 깨닫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변화가 생겼다. 민주 학생은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슬람 관련 수업을 들으며 꾸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는 외국 나가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 특히 무슬림 친구들을 만난 게 아직도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기 힘든 사람



들이고 저는 또 크리스찬이라서 부정적인 인식이 아무래도 강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친구를 사귀고 보니까 그게 사실 색안경을 끼고 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돌아와서도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민주, 정치외교학과-

성주 학생은 초등학생 시절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학생 참여 경험을 통해 본인이 보수적이고 닫힌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
닫고 놀란 경우였다. 오랜 외국 생활 경험이 있음에도 본인이 인종이나 성적 소
수자에 대해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으며, 교환학생
을 통해 교류하게 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고 생각이
변화하는 경험을 했다.

사고하는 게 많아 바뀌었어요 동성 결혼이나 정치적인 이슈부터 사람을 바
라보는 입장이나 다른 인종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인종차별 같은 걸 하고 있
었구나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중략)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면 흑
인이다, 백인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애초에 피부색깔로 말하
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략) 이제 politically
correct 한 말을 쓰려고 노력하죠

-성주, 국제학부-

이와 같이 학생들은 편견의 대상이었던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교류하
는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변화를 겪었다. 서로 공유하는
정서가 다르고 쉽게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
고 함께 생활하며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혜진 학생이 이야기 한 것처럼, 학생들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마주치게 되는
외국인을 친숙하게 느끼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는 김현경
(2012)의 연구에서 영국에서 생활하며 소수민족의 입장을 경험한 유학생들이 타
인종과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해소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여준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만 인식했던 타 인종을 국적과 사용언어가 다른 ‘한 개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문화적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문화적 차이 인식과 포용: 모두 다 같은 사람이에요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 한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아닌 것으로 구분 짓던 태도는 점차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가진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었다. 동서양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처음에 학생들은 동양권 문화를 공유한 학생들만이 자신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동,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체류 국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처음 접하는 현지 문화의 단편적인 모습에서 차이를 느꼈기 때문이며, 민주 학생은 기숙사에 사는 친구가 남자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모습을 보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서양과 동양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오는 다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스페인어권 국가의 개방적인 성 문화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룬 양성혜(2007)의 연구와도 유사하며, 유교문화에 익숙한 한국 학생들이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형 학생 또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는 초기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낀 것에 비해, 서구권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는 공유하는 문화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고 느꼈다. 이 때문에 스스로가 다른 이들에게 이방인으로 비추어지거나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으며, 점차 각 문화가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적응하게 되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신기한 게 일본이나 중국 친구들과하고는 말을 하면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데, 그래서 서구권에서 온 친구들과하고 얘기를 하니깐 이게 뭔가 저희랑 모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술 마시는 방법도 다르고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되고 내가 이방인으로 보이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중략) 원래 개네들의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하니깐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주형, 경영학과-

아무래도 아시아인은 아시아인끼리 맞고 백인들이랑은 아무래도 벽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스트리아 친구랑 너무 친해져서 아니야 그냥 다 사람이구나, 그것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아시아인끼리 친했던 거지, 백인이라고 해서 흑인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잖아.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다 친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윤지, 영어영문학과-

윤지 학생의 경우도 처음에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아시아인끼리 동질감이 더 쉽게 생기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점에서 주형 학생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점차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편견 없이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수 학생 또한 문화권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입장을 지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원래 문화적 차이를 엄청 크게 생각했어요. 그냥 문화적 차이보다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차이보다는 어쨌든 공통점이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차이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이보다는 어쨌든 공통점이 더 많구나.

-지수, 사회학과-

학생들 중에는 서양의 문화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경험하며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상대방의 문화나 사회 분위



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오히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경우였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며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화와 상대방의 문화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송이 학생).

가기 전에 스페인은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그게 많이 깨졌어요 그냥 똑같이 다 사는 나라, 도시고 여기서 볼 때 유럽이라고 하면 되게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중략) 처음에는 되게 싫어했어요 행정 시스템도 너무 엉망이고 처음에는 되게 욕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다 이해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었지만 동경까지는 아니고 똑같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송이, 서어서문학과-

학생들마다 낯선 환경에서 처음에 타문화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나 입장에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고 다른 국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다름을 받아들였고,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형성되어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 김상학(2004)에 따르면 직접적인 접촉경험은 특정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학생들은 낯설게 생각하고 고정관념의 대상으로 여기던 특정 집단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호의적으로 태도를 변화할 수 있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학생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넓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점차 생각이 넓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기준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화라고 생각하며 이질감을 느꼈지만,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된 후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지섭 학생).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을텐데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그와 동시에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유교문화 때문에 좀 눈에 띄면 싫어하잖아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까지도 용인되는 것을 직접 보고 나니까 생각이 좀 넓어지더라고요

-지섭, 경제학과-

한편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각 문화권의 특성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배우고, 이를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정주 학생). 또한 타 국가에서 온 친구가 지나치게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주의해야겠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서로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인으로서 사는 것은 맞는데, 이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애들끼리 이야기 하는데 스위스 애가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스위스 치즈 빼고는 다 suck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애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발끈 하는 거예요.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이 강한 것도 필요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만났을 경우에는 죽여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영경, 식품자원경제학과-

더불어 학생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다른 문화나 국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살아갈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았다.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담을 수 있을텐데,



크면 클수록 많은 걸 답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릇을 키우는 게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갖고 있던 좁은 시각들을 깨트리는 과정에서 이게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잠시나마 거기서 살아보고 거기 학생들이랑 부딪혀보고 생각도 공유해보고 이런 게 사실은 글로벌 리더한테는 좀 필요한 게 아닐까.

-민주, 정치외교학과-

3) 외국인에게 도움의 손길 내밀기: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 학생들은 지나가며 마주하게 되는 외국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었다. 외국에서 생활하며 스스로가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거나 현지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 이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함께 수업을 들으며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외국인 학생에게 먼저 인사를 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다. 나아가 학교 밖에서 마주하게 되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게 되었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까지 변화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름 학생은 한국에 돌아와서 수업을 같이 듣는 외국인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먼저 다가간 경험이 있었다.

수업에 외국 학생들이 있는데 교수님이 인쇄소 가서 자료 복사하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 먼저 가서 같이 가자고 해서 도와주고 전에는 외국인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먼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아름, 영어영문학과-

영경 학생과 윤환 학생의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외국인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영경 학생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활하며 한 달 동안 혼자 여행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길을 몰라 헤매는 경우에 얼마나 난처한 상황인지 이해하고 있었고, 그 때 먼저 다가와서



길을 알려주었던 외국인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제가 옛날이었으면 그냥 지나쳤겠죠 한 달 동안 여행을 해 보면서 그런 경우에 얼마나 난감한지 알게 되었으니까 외국에서 길을 모른다 이러면 흑인 아줌마가 와서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변했다고 해야 될까 태도가 많이 변했죠 외국인들이 모른다고 하면 가서 먼저 알려주고

-영경, 식품자원경제학과-

이와 비슷하게 희연 학생은 길을 지나며 마주치게 되는 외국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어떤 일로 한국에 왔는지 궁금함과 반가움이 먼저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언제든 도움을 청해 와도 잘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친숙함이 증가한 변화를 보였다.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라며 지나쳤을 때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그걸 겪었으니까 (중략)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뭘 물어보거나 도움을 청했을 때 진짜 잘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희연, 교육학과-

민주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졌다고 이야기 하였다.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현지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기억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졌어요 카운터 서핑이라고 각 나라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정보 공유하고 친구 만나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국 와서도 그 사이트 통해서 몇몇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소개해주고



이런 활동은 했었어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중략) 우리 나라에 온 외국인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자. 사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없어졌으면 하는.

-민주, 정치외교학과-

외국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노동자로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외국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주 학생은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동안 학교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었다. 캐나다의 경우 인종 차별이 거의 없는 나라에 속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정주 학생은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기에 막연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입장에 처해보니 훨씬 더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느끼고 이해하도록 도왔으며,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시켰다.

한국에도 인종차별이 있으니깐,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실제로 제가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면서 느낀 삶은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박탈감도 있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더 그쪽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정주, 영어영문학과-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며 학생 스스로가 마주한 다양한 문화적 상황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정주 학생과 유사하게 주형 학생의 경우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겪었다. 특히나 머물렀던 캐나다 토론토 지역이 다문화 도시였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들을 포용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틈틈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관심은 한국



에 돌아온 이후에도 지속되어,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으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한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토론토 같은 도시에 비해서는 항상 음지에 있고 목소리가 작은 편이고 글로벌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좀 도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생각만 하고 실행은 못했는데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 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주형, 경영학과-

학생들은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며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적 이슈를 접하는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거의 인식하지 못했던 주변의 문제를 둘러보고, 외국인으로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4) 조국에 대한 재인식: 민간사절로서 자긍심이 생겼어요

학생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이 만난 외국인들이 자신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고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사절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갖게 되었다. 스스로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가지고 외국인 앞에서 언행에 주의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저를 만나면 한국 사람이란 이미지가 딱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이렇 것이다. 제가 잘못하면 웬지 안 될 것 같아서.

-희연, 교육학과-



자긍심과 더불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한국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돌아오게 된 경우도 있었다.

사실 가기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있다. 근데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았어요 (중략) 타지에 떨어져서 일종의 국가대표 같은 느낌으로 거기에 딱 떨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스스로 한국인 이구나라고 느낀 점도 많았고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럽다 좋았다 이렇게 느낀 점도 많았어요

-정주, 영어영문학과-

한편으로 다른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한국인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고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윤지 학생의 경우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고 생각해 크게 고민하였지만, 스스로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오히려 영문학을 하는 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교환학생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의미로 꼽았다.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한국사람인데 영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제 자아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미국학생들이랑 같이 공부 하면서 제 정체성이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이들과 내가 같이 해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김과 동시에 내가 영문학을 해도 나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될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 안에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 더 살펴보게 되고 이들과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비슷한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윤지, 영어영문학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한 후, 학생들은 이전에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한국의 사회문제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지수 학생의 경우 분단국가로서의 한국에 대해 인식하고 북한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외국에서의 생활과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는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거나 정체성을 더 확고히 다지는 것 이외에도, 균형적인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도록 도왔다. 한국과 다른 국가의 사회, 문화를 비교하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강점을 깨닫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나가기 전에 제 모습이랑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해보면 사실 그 전에는 막연한 동경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것은 나뉘구나, 이런 것은 좋았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민주, 정치외교학과-

특히 상당수의 학생들은 외모지상주의와 획일화 된 사고, 경쟁적인 분위기를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하고, 옷차림이나 외모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온 이후,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외모나 옷차림을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 다시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굳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단점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너무 외모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면지, 너무 주위를 의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중략) 예전에는 한국 사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못 느꼈는데 외국에 한 번 나갔다 오니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윤지, 영어영문학과-

윤지 학생은 한국에 돌아온 이후 특히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사회 분위기가 불편하다고 느꼈으며, 외모지상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외모 지상주의 뿐 아니라 취업이나 졸



업과 같이 한국사회에서 대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다시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 또한 학생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영국에서 지내면서) 심적으로 가장 편안하다고 느꼈고 웃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가장 많은 1년이에요 (중략) 한국은 막 시간이 남으면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넌 왜 스펙 안 쌓냐 그리고 또 한국은 다 말랐잖아요 거기서는 뚱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웃도 되게 자유롭게 입고 뭔가 외모에 대한 신경을 덜 써도 되니까

-혜진, 국제학부-

그러나 동시에 학생들은 한류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느끼면서 한국의 강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는 경험도 하였다. 앞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던 윤지 학생은 한류문화를 필두로 한 한국의 영향력을 느끼며,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 주었다. 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자신의 모국이 가진 강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어느 나라나 각자의 강점과 문제점이 공존한다는 것을 깨달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확실히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갔을 때 강남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하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을 수 있구나.

-윤지, 영어영문학과-

항상 스웨덴 선진국 복지 국가 이려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보다는 다 무조건 좋다. 선망의 대상으로 느껴졌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대로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고 개네 나라도 개네 나라대로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구나.

-희연, 교육학과-



이를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스스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이라 생각하며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 나아가 아시아인으로 정체성을 깨닫고 확인하는 기회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특히 대학생은 발달과정상 민족 정체성을 강하게 형성하는 후기 청소년기에 속한다는 점(Phinney & Alipuria, 1990)을 고려할 때, 낯선 환경에서의 해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 학습태도

1) 적극적 수업 참여 태도: 자신 있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함께 수업을 듣는 외국 학생들이 활발하게 발표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자신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자 노력했다. 한국에서는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이 수업의 흐름을 끊고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자신만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쑥스러워 질문을 피하게 된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수업 중에 모르는 점은 사소한 것이라도 묻고 지나가는 외국 학생들을 보면서 이전의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노력 또한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손을 들면 (주위의) 시선이 따갑잖아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뭘 그렇게 물어보냐 이런데, 거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교수님들도 다 그런 걸 감안 하시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막 질문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시선이 따가운데 거기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주형, 경영학과-



주형 학생의 경우 파견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현지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교수님께 질문을 하고, 교수님도 항상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였다. 한국에서는 주로 교수의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를 보는 식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캐나다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학생들을 보는 것은 주형 학생에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그러한 분위기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형 학생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를 겪었다.

학생들은 한국과는 다른 수업 분위기에 놀라고, 점차 동화되며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다른 학생들의 적극적인 모습 외에도,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교수의 태도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민주 학생과 영경 학생의 경우, 교수와 학생 간에 형성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한국에서 경험한 수업과의 차이점으로 꼽았다. 정확한 답을 말하지 않거나 엉뚱한 질문을 해도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수의 태도로 인해 편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질문을 받아주시는 태도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보 같은 질문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입장은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받아준다 이런 입장이라서, 학생들이 더욱 더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 정치외교학과-

질문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있나요?’ 그래도 손을 안 드는 마당인데, 수업 중간에 그냥 손을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막 질문을 해요 (중략) 그냥 교수와 학생의 관계 자체가 되게 달라요 한국이랑 저기는 저기는 가르쳐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모르면 물어볼 수 있고

-영경, 식품자원경제학과-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수업을 방해한다고 눈치를 주는 경우, 외국에서처럼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에 제한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횃수를 줄이더라도 여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국적인 수업 분위기에 맞추어 소극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학생도 있었다.

저는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 혼자 수업시간에 질문했거든요 애들이 너 진짜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여서 놀랐어요 분명히 한 학기 밖에 없었지만 제가 너무 거기에 몰입을 했던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렇고

-민주, 정치외교학과-

민주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동안의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수업시간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참여했지만, 그런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는 주변 학생들의 반응에 점차 질문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수업을 듣는 변화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대부분의 수업이 대형강의로 이루어지고,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한국의 수업 방식 때문에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주형 학생의 경우도 처음에는 질문을 하는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하였다. 하지만 다른 수강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민주 학생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수업을 하다가 막 질문을 해요 근데 한국 애들은 이상하게 쳐다보죠 (중략) 내가 이 친구들한테 방해가 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덜 의식하게 되는 거? 저는 그랬어요 이제 남 신경을 훨씬 덜 쓰게 되고 내가 궁금한 건 내가 이렇게 질문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좀 많이 달라



졌던 것 같아요

-주형, 경영학과-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적극적 태도를 유지하는 주형 학생과 같이 지수 학생이나 윤지 학생 등 상당수의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더 편하게 발표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좀 더 말하는 건 편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면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말을 하기 쉬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수, 사회학과-

전 원래도 발표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영어로 발표한다던지 횟수가 많아졌거나 더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로워졌다, 더 발표하고 싶어졌다 이런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윤지, 영어영문학과-

한편 수업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국제학부 학생의 경우, 수업 태도 측면에서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한국에서도 이미 비슷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학교에서의 수업 경험이 특별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K대학의 경우 해당 학과의 수업이 대부분 영어강의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교에서 받은 수업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고 수업으로 인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중략) 워낙 와튼 경영대가 발표를 중시하는 학부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발표 조금 더 신경 쓰고 제가 워낙 국제학부 수업을 듣다보니까 수업 방식의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비슷했어요

-성주, 국제학부-



저는 일단 국제학부잖아요 국제학부는 다 영어로 하니까 이미 다 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쓰는 거는 영어로 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혜진, 국제학부-

2) 교수와의 상호작용: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교수와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교수를 편하게 인식하게 된 학생들은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모르는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교수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교환학생 이전에도) 교수님을 간혹 찾아가긴 했지만 이전에는 사실 좀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을 때만 질문 드리러 갔었는데, 미국에서부터 교수님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굳이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진로에 관련해서나 아니면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냥 찾아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조금 더 공부 외적인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미, 경제학과-

정미 학생의 경우, 교환학생 경험 이전에는 교수를 찾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질문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변화가 생겼다. 미국에서 과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에도 고민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교수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찾아가기 이전에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지만, 직접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모습에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학업 또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교수와의 교류를 희망하지만 평소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미 학생과 같이 한 번의 경험이 지



속적인 교류를 이끌어내는 변화의 계기로 작용한 학생들도 있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파견대학에서 생활하며 한국에서보다 교수와의 관계 형성을 더욱 편하게 느끼기도 하였다. 외국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비교적 수평적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교수와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가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훨씬 자유로웠죠 교수님이 굉장히 친구 같았고 보통 first name으로 부르고 교수님이라는 말은 안 쓰고 그래서 인지 학생들이 발표 참여를 정말 많이 해요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다 같이 동등하게 얘기하고 발표하고 이런 수업이 많았어요 한국보다 훨씬 그런 위계질서가 수평적인 것 같아요

-윤지, 영어영문학과-

저는 수업에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교수님이 ‘아, 내가 틀렸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거 잘 모르는데, 나도 이거 전공이 아니야 전공을 하셨어도 정치학 전공이지만 뭐 세부전공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략)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보통 교수님 말이 다 맞고 받아 적고 선생님 생각은 이렇구나 시험 때 이렇게 써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후략)

-지수, 사회학과-

윤지 학생은 교수와 학생이 동등한 입장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보았으며, 지수 학생은 교수가 스스로의 권위를 내려놓고 학생들과 편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또한 교환학생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위축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배려는 학생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워주기도 했다. 스웨덴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희연 학생의 경우도 수업에서 교환학생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교수의 도움으로 수업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한 경험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스페인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한 송이 학생의 경우에도, 수업에 참여하는 유일한 아시아인으



로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준 교수의 도움으로 수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교수님이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교환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줘야 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중략) 생각할 시간도 많이 주고 되게 배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희연, 교육학과-

스페인 지리 수업 선생님이 한국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져줬어요 꼭 한국을 물어봐주고 (중략) 교수님이 되게 좋았던 거? 스페인어 수업들도 교수님이 되게 다 좋고 어학 수업이고 하니까 문화 같은 것도 같이 배우니까 막 한국도 물어봐 주고 되게 잘 챙겨준 거 같아요

-송이, 서어서문학과-

모르는 점이 있으면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묻고 해결하며 학업적인 측면에서 교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도, 교수와의 유대관계 형성은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진짜 그 교수님을 정말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진로 고민할 때에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글로벌한 기회가 많이 있는 곳이 나한테 맞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민주, 정치외교학과-

민주 학생의 경우, 친하게 지내던 교수님과의 교류를 통해 진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자신은 해외업무에 적합하다는 점을 깨닫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현재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외국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은 무역, 항공 계열로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 안팎에서 이루어진 교수와의 교류를 통해서 학습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얻거나,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 진로에 대한 확신 등을 얻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학생들이 교수를 찾아가고 교



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화를 이끌어 내었고, 학생들은 수업과 관련하여 모르는 점이 있으면 교수를 찾아가 묻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민주 학생 또한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교수를 찾아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였으며, 이는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수를 편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이와 유사하게 지섭 학생도 네덜란드에서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교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교수를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교수님에 대한 권위가 좀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네덜란드에서 교수님의 배려로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을 계기로) 내가 언제나 편하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거나 하는 인식이 생겼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교수님께 개인적인 질문도 하고 연구실 근처에서 마주치거나 그러면 잠깐 얘기도 나누고 그런 일이 전에는 없었거든요

-지섭, 경제학과-

학생들은 늘 어렵게 생각하던 교수와 편하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외국대학에서의 경험을 통해 교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었다. 이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교수를 대하고, 찾아갈 수 있게 도왔으며 수업에서도 더 편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습태도의 변화: 꾸준히 능동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파견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매 시간 수업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양이 많았다는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꼽았다. 캐나다나 스웨덴에서 생활한 학생들의 경우, 수업 전에 미리 읽어 가야 하는 읽기 자료의 양이 많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스웨덴은 읽는 걸 중요시 하는 수업 방식이래요 (중략) 그러면 알아서 읽고 와서 읽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식이었어요 동그랗게 앉아서 교수



님이 읽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 해 보자 이러면 각자 이야기를 해 보고 (중략) 그렇게 많은 양을 읽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읽어졌어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갔는데 안 읽어 오면 말을 못 하니까

-희연, 교육학과-

주로 교수자가 강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은, 학기 초에 원래 하던 대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내 자료를 충분하게 읽지 않거나 미리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점차 수업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에는 현지에서 만난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태도 또한 영향을 주었다.

학생들이 다 엄청나게 많은 리딩을 읽어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는 대충 안 읽어오고 아니면 중요한 것만 읽어오고 그러는데, 학생들끼리 쉬는 시간에도 막 리딩 다 읽었냐면서 나는 수업 끝나고 도서관 간다는 말을 들으면서 여기서는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처음에 와 닿았어요 (중략) 제가 간 학교가 좀 잘하는 학교여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전에 안 해 본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걸 해보고 진짜 아등바등 공부했던 것 같아요

-민주, 정치외교학과-

민주 학생은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된 경우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 학생들은 자유분방한 외국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그리 열성적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자율에 맡겨진 학생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외국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컸다.

민주 학생과 비슷하게, 윤지 학생과 현수 학생 또한 외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서 자극을 받고 스스로의 태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윤지 학생은 통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따라 학습에 임



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느끼고, 한국에서의 통제적인 분위기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보이기도 하였다.

미국 학생들은 좀 자유로운 대신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하고 (중략) 한국에서도 몰래 딴 짓하려면 다들 딴 짓 하잖아요 통제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윤지, 영어영문학과-

현수 학생의 경우도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학생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다만 공부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걸 확실히 분리 하더라고요 놀 때는 놀고 할 때는 공부하고 (중략) 출석 체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업에 대해서 반드시 수업시간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없고 가서 열심히 참여하는 건 되긴 하지만 일 있으면 빠지는 거고 ‘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현수, 역사교육과-

정미 학생은 시간운영이 자유로운 대학생이 불규칙하게 생활하기 쉽다는 점을 경계하며,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주중에는 학업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자유분방하게 시간을 보내는 학교 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미 학생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고 꾸준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의미 있게 보았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원래는 좀 맨날 놀았었는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노는 날을 정해놓고 다른 날은 거의 약속 안 잡고 제가 해야 할 일 하는

-정미, 경제학과-



한편으로 학생들은 파견학교에서 새롭게 접하거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한 수업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며,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관련 분야로의 적극적인 학습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저는 아무래도 *Economic development* 수업 들었던 교수님 덕분에 그와 관련해서 한국에 와서 더 많이 찾아보고 지금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수업)도 청강 하지만, 우리학교 국제학부 수업들도 그에 관련한 수업이 많더라고요 그 수업도 들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민주, 정치외교학과-

민주 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수업이 개설되지 않아 들을 수 없었던 과목의 수업을 파견학교에서 들을 수 있었다. K 대학에서 이중전공을 하고 있는 경제학과에는 개발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차에, 파견학교에서 희망하던 수업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민주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열정적인 학습 태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에 속하며, 꼼꼼히 수업 준비를 하는 한편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학생들은 파견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강의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이수기준에 따라 들어야 하는 과목을 우선순위에 두는 조금은 수동적인 과목 선택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자신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수업을 선택하고 공부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점이다.

제가 좋아하는 강의를 더 선택하고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죠

-현수, 역사교육과-

현수 학생의 경우도 자신이 좋아하는 강의를 선택하려고 하게 되어, 과목 선택 기준의 변화를 겪었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흥미를 두고 있는 점에 주



목하고자 하였다.

한편 스웨덴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에서 크게 인상을 받고 깊이 있는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한 학기에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것에 비해, 깊이 있게 한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만족감은 수업 방식에 대한 인식과 학습 태도의 변화도 이끌어 내었다.

(스웨덴에 있을 때는) 한 학기에 한 과목 수업을 듣잖아요 그래서 깊이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7학기를 (한국에서) 다니고 거기에 갔는데, 7학기 동안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과목도 있고 (중략) 이렇게 깊게 배우니까 확실히 나는 이렇게 배웠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세라, 정치외교학과-

4) 외국어 능력 향상: 더 이상 외국인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아요

상당수의 학생들은 외국어 실력의 향상을 목표로 생각하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대부분 영어 실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자신의 전공이나 파견 국가의 특성에 따라 제2외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 기대한 만큼 크게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외국인과 이야기 하며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 학생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외국인 앞에서 쫄지 않는다는 것? 문법이 맞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아름,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은 외국인과 교류하며 직접 외국어로 대화하며 꼭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자신감



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업 시간을 통해서도 외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적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신감이 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영어 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불어도 정말 좋구나, 재밌구나. 애정을 더 키워서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전에 불어 공인 능력시험 쳤거든요 그런 언어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졌고
-민주, 정치외교학과-

민주 학생과 현수 학생도 외국어 능력 측면에서 자신감이 향상되고, 언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외국어 능력 관련 변화로 꼽았다. 학생들은 외국인과 실제로 대화했던 경험을 통해서 외국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였다. 특별히 자신의 외국어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었던 것도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이다. 또한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꾸준히 학습하고 실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동기를 형성했다는 점 또한 지속적인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자신감은 얻은 것 같아요 외국인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예전에는 좀 머뭇거렸다면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문법도 틀리든 맞든 얘기도 하고 재밌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 엄청나게 제가 향상되었다는 느낌은 없지만
-현수, 역사교육학과-



다. 직업과 성공에 대한 인식 전환

1) 진로를 확신하게 됨: 꿈에 한 걸음 다가섰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의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한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외국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외국 대학에서의 생활을 통해 유학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학문에 대한 자신의 적성과 외국 생활에 대한 적응력 등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교환학생 참여 경험을 통해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길을 먼저 경험한 교수와 대화하거나, 교수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꿈을 구체화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윤지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극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었고,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갖기 힘들었다. 막연히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꿈을 구체화 시켜가야 할지 막막해 하던 차에, 미국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네, 보지 않았으면 확신이 없었겠죠 이제 내 생각이 맞는 건가. 틀린 건 아닌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겠죠 아마 교환학생을 가서 보지 않았다면

-윤지, 영어영문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외국에서의 삶은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학생들은 해외 취업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고, 본래 관심이 있던 학생들은 스스로의 적성과 연관시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주형 학생의 경우 본래 해외 취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무역회사나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자신의 성향이 맞는 편이라 생각해왔다. 특



히 주형 학생은 평소에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없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전에는 단기 여행이 해외 경험의 전부였기에, 스스로의 성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고 교환학생을 떠나며 가장 큰 목표로 진로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무역회사나 해외 영업회사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중략) 제가 하고 싶은 직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내가 내 성향에서 어느 정도 맞는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중략)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신을 가져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형, 경영학과-

교환학생에 참여하는 동안, 다른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주형 학생은 자신이 희망했던 직종에 자신의 성향이 잘 부합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 학생의 경우, 주형 학생과 유사하게 실제 해외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성향을 확인하고 본래 희망한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는 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세웠던 목표를 이루었다.

아무래도 나가기 전 제 모습이랑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해보면 사실 그 전에는 막연한 동경심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가서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것은 나뻤구나, 이런 것은 좋았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중략) 제가 앞으로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해외로 나가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해외 나가는 게 안 맞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안 맞는 것도 경험해보지 않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랑, 경험해보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민주, 정치외교학과-

특히 민주 학생은 이전에는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으



로 스스로 그에 적합한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파견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가 해외 업무와 관련된 진로를 갖는데 적합하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현지 학생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시각을 넓혀 가는 과정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외국 취업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외국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들은 교환학생 이전에 특별한 해외 경험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외국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수 학생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였고, 외국에 있는 기회를 인식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직업관의 변화를 겪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취업 기회를 국내로 한정했던 것에 비해, 귀국 후에는 외국에서의 취업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꼭 직업을 가져도 한국에서만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 기회가 있고 괜찮다면 굳이 한국에서 살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 좀 더 넓어진 거라고 해야 할까요? (중략) 아, 나는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외국에 있는 기회를 아예 생각 안 해봤어요

-지수, 사회학과-

이와 유사하게 지섭 학생의 경우에도, 교환학생 참여 경험을 갖기 이전에는 한국을 벗어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외국에서 직접적으로 문화를 경험하거나 생활해 보지 않은 학생들은 외국에서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전에는 한국에서만 살아야겠구나, 한국에 가족이 있고 한국에 친구가 있고 한국어를 쓰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한국에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나서는 좀 더 외국에 어디든 일할 데가 있구나, 좋아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가서 살아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지섭, 경제학과-

2)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계획 수정: 다른 길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외국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바와 잘 맞지 않아 진로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결심한 학생들(윤환, 혜진)도 있었다.

지리교육이다 보니 지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환경 쪽에 관심이 있어서 스웨덴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파견학교에) 지속가능개발이라는 과가 있거든요 (중략) 환경 쪽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갔어요

-윤환, 지리교육과-

윤환 학생은 환경과 관련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과 흥미를 고려하여 스웨덴으로 교환학생 참여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외국 대학에서의 경험을 통해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고 돌아왔다.

제가 떠난 게 3학년 1학기 끝나고 있었는데, 그 때 저는 대학원에 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어요 제가 그 때 윤리학에 꽂혀가지고 (K대에는) 신학이나 종교학이 없는데 버밍엄대학교에 있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지원을 해서 버밍엄대학교에서 신학을 듣고 왔는데 결론은 일단 취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혜진, 국제학부-



혜진 학생의 경우 교환학생을 떠나며 세웠던 목표 중 하나가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파견국인 영국에서 그 목표를 찾고 돌아오고자 했고, 특히 대학원 진학을 굳게 마음먹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다른 학생에 비해 진로계획이 뚜렷한 편이었다. 그러나 파견학교에서 만난 교수와 대화하며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기 보다는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공부를 계속하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진로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주변에서 신학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오히려 진로에 대해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경우에 해당하였다.

한편으로 본래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 중에서도 해외 취업에 대한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마음먹게 된 경우도 있었다.

방문학생 가기 전에는 거기서 일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자, 인턴 같은 거라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일해 보니까 힘들겠더라고요 일단 뽑아주지도 않을뿐더러 뽑혀도 잘 적응해서 일하기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해외 진출은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구요

-정주, 영어영문학과-

정주 학생의 경우 원래 해외 취업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통해 해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란 생각을 하고 해외 취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주 학생의 경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다른 해외경험이 없었던 학생으로 주변에서 해외 경험을 꼭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를 결심한 학생이었다. 원래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외국 학생들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상대적으로 한국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외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정주 학생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 외국에서 생활하며 외국 취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학생들에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생들은 저마다의 상황에서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영향을 받는 경험을 했다. 해외 취업 또는 외국 대학원 진학에 대한 꿈을 구체화하게 된 학생도, 진로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게 된 학생도 모두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며 한 단계씩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다듬고, 스스로 판단의 중심을 세우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진로의) 방향성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틀을 많이 바꿔서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져도 너무 일에 빠져들어서 내 자신을 잃고 내 삶을 잃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 뭔가 중심이 서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희연 교육학과-

희연 학생은 한국에서는 자기 자신보다 일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에 비해, 스웨덴에서 생활하며 만난 사람들은 개인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하여 생각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은, 희연 학생이 스스로의 가치를 우선시 하며 중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변화를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성공의 판단 기준 변화: 삶의 만족과 행복이 더 중요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진로 계획을 고민하고 구체화 시켜가는 바탕에는 성공의 의미와 행복한 삶의 기준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갖거나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자기 스스로 세운 성공의 기준을 따르기 보다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거나 다른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한 삶의 모습 이외에도 다



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끌려온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전에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고려해 왔지만, 앞으로는 스스로의 만족과 행복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는 변화한 태도를 보였다.

지섭 학생의 경우 행복한 삶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성공의 의미와 행복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전에는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이 되는 가치라고 생각했고 사회적 인식의 틀에 박힌 성공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오며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삶을 꾸려가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 전 까지만 해도 좀 틀에 박힌 성공의 기준에 따라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직업적 성공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우선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섭, 경제학과-

한국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시절 다양한 스펙을 갖추고 졸업과 함께 빠르게 취업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생활해왔다. 잠시 한국을 떠나 생활하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성공 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들 또는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엿보고, 단순히 안정된 직장을 잡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된다.

혜진 학생의 경우 교환학생을 통해 교류한 친구들에게서 성공에 대한 생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혜진 학생은 불안한 마음에 쟁겨간 대기업 입사 시험 문제집을 본 외국 친구들이, 어떻게 기업을 위한 시험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을 느꼈다고 이야기 하였다. 원래 스스로 추구하던 가치가 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관심도 없던 진로를 준비하고자 했던 자



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경우였다. 혜진 학생은 돈은 적게 벌더라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고자 마음먹게 되면서, 직업과 성공에 대한 생각의 잣대에 커다란 인식 변화를 보인 학생이었다.

굳이 한국에서 말하는 성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중략) 이제는 딱히 대
기업을 안 가도 되고 그냥 중소기업이던 뭐 그런 것도 없어도 그냥 내가 좋
아하는 일을 하고 돈을 얻을 만큼만 벌어서 가족과 잘 먹고 살자 그런 주의
가 된 것 같아요

-혜진, 국제학부-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안 하고 싶은 것은 죽어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성주, 국제학부-

성주 학생도 혜진 학생과 비슷하게 주변의 권유와 취직에 대한 걱정으로 경영학과를 이중전공 하던 학생이었다. 스스로의 성향이나 적성에는 잘 맞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는 추천을 받고 수업을 듣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내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전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며 학생들이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이야기 하였다. 성주 학생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성공에 대한 생각과 진로에 대한 계획에 변화를 겪은 학생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데 좀 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서둘러 취업해야 한다는 생각에 촉박해 하기보다, 윤지 학생과 같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조금 더 삶을 여유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자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전에는 제가 인턴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를



안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한 구석에 불안감이 있었는데 (중략)
이제는 당장 뭐 하나를 더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길게 봐야 하
는구나. 길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윤지, 영어영문학과-

윤지 학생의 경우 파견학교에서 만난 미국학생들이 당장 진로에 도움이 되는
지를 따져서 스펙을 쌓거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일만 골라서 하지 않고,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게 참여하는 모습에서 크게 인상을 받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의 꿈과 목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
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불어 한국 학생들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좋
은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었다.

원래 금융권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교환학생) 갔다 오면 바로 준비해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인가? 내가 이것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공부하고는 있는데 제
속 의문이 들어요

-영경, 식품자원경제학과-

영경 학생 또한 확고하다고 믿었던 진로 계획에 의문을 품게 된 경우로 캐나
다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 희망하던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며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교환학생 참여 기간 동안 ‘힐링’의 시간을 가지며 여유 있
게 생활하였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는 공백 없이 바로 취업준비를 하겠다
는 계획에 따라, 돌아온 이후에는 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끊임없이
스스로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현재는 당장 취직을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
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이다. 영경 학생도 이전에 삶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크게 변
화를 겪었으며 이전에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온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더 여유
를 가지고 삶을 둘러보게 되었다는 변화가 있었다. 더불어 한국의 무한 경쟁 사



회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길 희망하고 있었다.

윤지 학생처럼 변화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거나 영경 학생처럼 새롭게 변화를 겪는 학생들도 있지만,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전의 태도로 돌아오게 되는 학생들도 있었다. 정미 학생 또한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 학생 중 한명 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나 기존의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직업의 세계가 굉장히 넓구나 생각을 했었고 꼭 다른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구나. (중략)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서) 살아온 환경이 23년이 넘는데 6개월 갔다 왔다고 제가 완전히 바뀔 수는 없잖아요

-정미, 경제학과-

한국에 돌아오니깐 다시 한국에 맞춰서, 애들이 뭐 한다더라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송이, 서어서문학과-

일부 학생들은 삶의 대부분을 살아온 공간이자, 앞으로도 살아가야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다시 생각이 변화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송이 학생처럼 다시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고, 이를 견디기 어려워서 해외취업이나 이주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계획을 세운 학생(세라 학생)도 있었다.

빨리 돈을 벌어서 이민을 가야겠다.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면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세라, 정치외교학과-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첫걸음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입학과 동시에 다양한 공모전과 인턴십 등의 활동을 찾아가며 남들과 차별화되는 경력을 하나라도 더 많이 쌓기 위해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압박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도 갖지 못 해왔다. 대학생활의 낭만을 쫓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누릴 기회도 없이 학생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쟁하고 달려왔다. 이러한 대학생활을 해온 학생들에게 교환학생 참여 경험은 경쟁적인 한국 사회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더 넓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이제껏 생각해 보지 못한 행복한 삶과 성공한 인생의 기준을 마주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물론 한국에 다시 돌아와 변화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으로도 학생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라. 사회·심리적 성장

1) 자립심과 도전정신의 고취: 혼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가족과 친구들이 없는 낯선 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경험을 하였다. 혼자서 생활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에도 어려운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다.

겁이 없어졌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도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가도 어떻게든 인연이 잘 닿든 운이 좋든 아니면 내가 잘 해서든 어떻게든 상황은 풀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지수, 사회학과-



(영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혼자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
까 자신감도 생기고요 외국에서도 혼자 살았는데 어디든지 못 가랴 제가 원
래 먼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닌데, 교환학생 다녀와서는 좀 더
적극적이 되었지요

-아름, 영어영문학과-

지수 학생과 아름 학생은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생활한 경험을 통
해 어느 곳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
히 아름 학생은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처음이었기에 자신감 형
성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원래 적극적이지 않았던 성격에도 영향을 받아,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독립심이란 용기 같은 것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거
예요 혼자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겁이 되게 많아가지고 못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송이, 서어서문학과-

송이 학생의 경우도 혼자 여행을 다니며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한 경험을 통
해서 독립심과 자립심을 많이 키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송이 학생은 부
모님의 권유가 교환학생 참여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을 만큼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전에는 혼자 생활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었지만, 혼자서 집을 구하기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스스로 성
장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지섭 학생도 생활비를 스스로 마
련하기 위해 한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변 유럽 국가를 혼자 여행하
는 등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든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하게 얻게 되었다.

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살면서 배운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지섭, 경제학과-



한편으로 외국 생활에 적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한 학생도 있었다.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든 (대화에) 끼어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중략) 저한테 말할 기회가 별로 안 오잖아요, 솔직히. 외국인인데 서투르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오면 저는 가장 빠르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니 목소리가 엄청 커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변화 했어요).

-정미, 경제학과-

정미 학생의 경우 원래 활발하지 않은 성격이었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고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화하였고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정미 학생은 처음에는 부족한 영어실력 때문에 외국 학생들과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크게 스트레스가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열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대화 분위기나 생활 방식을 체득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빠르고 큰 소리로 이야기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말하는 것과 활달하게 생활하는 것 자체를 즐기게 되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정미 학생의 변화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하는 것도 열심히 하게 되고 예전에는 그냥 학교만 다니고 학교에서도 팀 이끄는 대로 따라 갔다면 (교환학생) 갔다 와서는 더 주도적으로 거기서 워낙 재미있었으니까 약간 연장선상이 되는 것 같은. 전에 3년 다닐 때는 학점 관리만 하고 과외하고 그냥 대학생들이 하는 대로만 했다면 지금은 똑같은 걸 하더라도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중략) 과제도 주도적으로 하고 팀플에서도 지루해하거나 가고 싶어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디어 제시하고 그러니 재밌어질 수밖에 없는.

-윤환, 지리교육과-



윤환 학생의 경우에도 정미 학생과 유사하게 이전에는 학교생활을 하며 느낄 수 없었던 재미를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다. 교환 학생 기간 동안,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삶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었기에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졌다.

한편 교환학생을 통해 외국 생활을 경험하고 즐거움을 맛본 학생들은 이후에도 유사한 경험 기회를 찾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주형 학생은 자신의 흥미와 잠재력을 발견하고, 타문화 사람들과의 교류할 수 있었던 교환학생 참여 경험을 특별하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해외 교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제가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나서 또 다른데 한 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예전에는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 이제 집에 오면 자꾸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턴도 찾아보고 또 봉사활동.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름에 또 아프리카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역마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제 한 번 제 자신에게 재밌다는 걸 아니까 또 다른 경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한번 갔다 오더니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재밌다 보다 녀는

-주형, 경영학과-

주형 학생은 돌아와서 한 학기 학교생활을 한 이후에 여름 방학을 이용해 해외 봉사활동으로 아프리카에 갈 계획이라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교환학생 참여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접하게 된 것이 주형 학생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끊임없이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을 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한번 외국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이후에도 외국 생활 경험을 찾고 참여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막연한 두려움이나 동경보다는 직접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학생들은 외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기와 자신감



을 얻고, 나아가 더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즐거운 변화의 경험은 지속적으로 해외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흥미와 잠재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아에 대한 성찰 기회: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학생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며 한국과 비교하여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직업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익숙했지만, 외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스로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주 학생의 경우 처음에 한국에 돌아오고 난 후에는 오히려 다시 한국에 적응해야 할 정도로 변화하였고, 다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부담이 되어 다가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집중하며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깊이의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자체에서 변화가 있었다.

저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직업 간의 서열 의식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략) (거기는) 대학생인데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데모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사회에 대한 스스로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게 많아서 와서는 좀 힘들었어요

-민주, 정치외교학과-



한편 지수 학생은 스웨덴에서 생활하며 한국에서와 같이 학점 채취기에만 집중하거나 일상에 쫓기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하게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고 하였다. 시간을 훨씬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여행을 다니거나 마음껏 놀기도 하며 스스로의 생각을 펼치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여행도 다니고 놀고 싶은 만큼 놀고 그러면서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글도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고 한국에 있을 때 보다 여유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모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말 그대로 쉽듯처럼 쉬어가고 놀고 새로운 것도 보고

-지수, 사회학과-

교환학생 기간이 대학생활 중에 맞볼 수 있었던 휴식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스펙’을 강조하고 학생들은 입학 이후 자신만의 경력을 쌓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왔다. 그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고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여유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한 없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형성해 주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후에 외국에서와 같은 태도를 나타한다고 평가받을 것이란 생각에 두려움을 갖거나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학생들도 있었다.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이 즐길 줄 알아서 매일 산책하고 그런 게 되게 부럽고 마음에 조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천천히 해도 돼 이러면서 하는데, 한국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 차이를 느낀 게 한국으로 오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마지막 목적지가 한국이니까 다 한국 사람들 밖에 없었는데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짐 내리고 다 꺼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한국에 왔구나. 이게 바로 한국이지.

-송이, 서어서문학과-



좀 더 여유로워졌달까? 더 행복해 보이고 뭔가 좀 더 세상을 넓게 보는 것 같다. 무조건 취업, 결혼, 성공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인조이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만나는 애들마다.

-혜진, 국제학부-

혜진 학생의 경우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는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하고 좋은 학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서 덜 답답해지고 여유로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자신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혜진 학생은 취업, 결혼, 성공과 같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압박받고 있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삶을 즐기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변화한 자신의 모습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나태함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에 한국에서 계속 변화한 모습으로 생활해도 되는지 혼란스럽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 하였다.

한편으로 교환학생 참여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한 학생도 있었다. 지섭 학생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며 인턴십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알지 못했던 스스로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정체성을 확실히 찾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거기서 개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저의 모습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런 내 모습이랑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구요 그에 따라서 저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좀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좀 더 안정적인 자아를 얻고 온 것 같습니다.

-지섭, 경제학과-



2.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 발달의 영향요인 탐색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변화할 수 있었다. 본인의 적극적인 성격이나 외국어 실력, 목표 설정 여부와 같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학생들이 겪는 경험의 폭과 의미가 달라졌으며,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어떤 지역에서 생활했는지 또한 각자의 경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환경의 특성이나 학생 스스로의 성향에 따라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과정에 한계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발달을 가져온 의미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경험을 개인 차원과 환경 차원으로 나누어 학생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인 차원의 요인

1) 사전 목표설정의 중요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스로 세운 목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교환학생 참여 경험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달성하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었으며, 이는 어학 실력 향상, 진로 결정, 다양한 친구 사귀기, 여행 및 문화 체험 등으로 다양했다. 미리 목표를 정해둔 학생들은 각자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와 학교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체류하게 될 국가와 학교가 정해진 이후에도 다양하게 정보를 찾아보며 스스로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예상한 것과 학교의 특성이나 분위기가 달라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윤지 학생은 평소 희망하던 연극 수업을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연극과가 있는 학교를 선택하여 자신의 목적도 이루고 진로 계획도 확



고하게 다지는 성공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인터뷰 하는 동안 느낄 수 있었다. 한편으로 윤지 학생은 자신이 인터뷰에 참여한 이유는 교환학생을 떠나기 이전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와 파견 학교의 특성이 잘 부합하는 지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에서 자신과 함께 생활한 친구는 계획한 목표를 이루기에 학교의 특성이 잘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후배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같은 학교에서 생활했음에도 한 사람은 성공적인 교환학생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에 비해 다른 사람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에서 목표를 미리 세우고 그에 맞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이 경험이 너무 좋았는데 저희 학교에서 같이 갔던 친구는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저는 너무 좋았고 그런데 그 차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학교에도 그게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알고 가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후배들도 그렇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인터뷰에) 참여한다고 한 거예요

-윤지, 영어영문학과-

더불어 학생들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마음가짐 또한 교환학생 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영경 학생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현지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환학생 가서 자기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자신에게 달린 것 같아요 (중략) 교환학생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감상이 다른 것이고 느낌도 다르고 평가도 다르지만 그게 다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영경, 식품자원경제학과-

이는 외부 환경이 주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태도로 임



하는 지에 따라 각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목표에 적합한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환학생을 가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본인에게 달린 것이지요 그냥 가면 되겠지 하면 얻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아름, 영어영문학과-

아름 학생도 영경 학생과 유사하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 아름 학생의 경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생각의 틀을 넓히는 것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이루고자 한 목표였다. 원래 낮을 가리고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스스로 이를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성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름 학생은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어 각자의 노력에 따라 교환학생을 통해 얻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목표 설정과 그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목표 설정과 학교 선택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국가나 학교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보다는 현지에서 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으며, 현지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아주 사소한 정보까지도 얻기를 원했다. K대학에서는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들에게 ‘경험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환학생을 떠날 예정인 학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험보고서만이 유일한 정보처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으며, 직접 다녀온 학생을 만나거나 파견 예정 학교에서 제공하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개인의 성격과 외국어 능력

학생들의 성격과 외국어 능력 또한 개인의 경험과 발달의 차이를 형성하는 영향요인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성격은 낯선 환경에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현지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었다. 특히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를 목표로 한 학생도 있었으며, 반면에 소극적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친구 사귀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도 있었다. 적극적인 성격의 학생 중에서는 현지 학생들과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형성하기 위해 특정 기숙사에 입사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제가 미국 대학생활을 정말 느끼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미국 대학생들이랑 어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기숙사를 선택했어요 (중략) 거기서 1학년들이랑 같이 놀아야지 정말 미국대학생활을 하는 거지 3, 4학년들이 사는 아파트 살면 친구하기도 어렵고 결국 공부만 하게 될 거라고 해서 제 목표는 미국 대학생 1학년처럼 새내기로 돌아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갔어요

-성주, 국제학부-

성주 학생의 경우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미국에서 현지 대학생처럼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지 1학년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선택하였다. 이미 학교에 적응한 재학생들은 외국인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더 쉽게 어울릴 수 있는 1학년 학생들과의 교류 기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지섭 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의 적극적인 성격이 현지생활에 잘 적응하고 다른 학생보다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당수의 교환학생이 현지에서의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비해, 지섭 학생은 현지에서의 삶에 동화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였다고 하였다.



대인관계가 거의 가서 적응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좋았고 그 다음에 가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는 편이라서 가서 6개월 체류하는 동안 한 5개월 정도를 일했어요 그것도 역시, 식당에서 일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인턴십을 하고 좀 바쁘긴 했죠 다른 친구들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가서 편하게 공부를 하면서 여행을 한다, 이렇게 생활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저는 좀 거기서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죠 그런 점이 그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단기간에 6개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성향 같은 게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적응하는 게

-지섭, 경제학과-

이로써 학생 개인의 성격과 대인관계 형성 능력은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뿐 아니라 각자가 느끼는 경험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미 학생 또한 소극적인 성격으로 현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의 사례를 통해 개인의 성격이 프로그램 경험과 크게 관련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근데 그 친구가 성격이 많이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거의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랑 같은 하우스 메이트였어요 같은 집에 살았는데 룸메가 외국인 두 명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룸메들이랑은 얘기도 잘 하고 지냈는데, 그 친구랑은 룸메이트들이랑 아예 얘기를 거의 안 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되게 많이 있는 걸 봤었고 모르겠어요 어울리기보다는 되게 자기 방에서 보냈던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랑 통화하고 한국 드라마 보고 혼자서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성격이 많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좀 힘든 요소였던 것 같고 (중략) 만약 적응하기 힘들 때는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의무적으로라도 접촉을 해 주면 약간 기회라도 생기는데, 사실 그런 건 많이 없는 편이에요

-정미, 경제학과-

교환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들은 혼자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원래 적극적이고 활발한 학생의 경우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학생들은 적응과정부터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적응과 정에서의 어려움은 전반적인 프로그램 경험과 계획한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가 필요한 점이다.

한편으로, 정주 학생은 특히 수업 시간에 소극적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외국 대학에서 생활하면서 크게 변화한 점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소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한국 학생들과 비교할 때,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는 외국 학생들의 모습은 정주 학생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본래 자신은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와 동일한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였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외국 대학의 수업 분위기로 인해 자극을 받고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변화하였지만, 학생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변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소극적이다 보니 대답 안 하고 서로 미루고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가서는 틀린 답이라고 해도 일단 말하고 보자는 학생들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서 하던 그대로 조용했어요

-정주, 영어영문학과-

또한 외국어 능력도 학생들의 성격과 더불어 현지에서의 적응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섭 학생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영어실력이 현지 적응을 도왔다고 생각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거나, 너무 빠르게 말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어 어려움을 겪었고, 영어 공부를 미리 하지 않았던 점을 후회하였는데, 이를 고려할 때 외국어 실력이 현지에서의 경험 기회와 교류의 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외국어 측면에서는 영어로 제 의사를 표현하고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잘 적응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국친구들, 그 때 교환학생 때 교환학생으로서 온 한국 친구들이 K대 포함해서 한 열 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면에서나 제가 좀 적응을 잘 했고 나이도 좀 많이 있는 편이었고 언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지섭, 경제학과-

이와 유사하게 박영휘(2011)는 학생이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 수에 따라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형성되는 국제화 의식 수준이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외국어 능력이 좋은 학생일수록 타문화 수용과 국제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보다 타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국제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은 낯선 국가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문화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형성하는 등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개인 차원의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나. 환경 차원의 요인

1) 체류 대학 내 구성원의 특성

교환학생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교환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지 학생들은 각자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과의 교류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현지 학생과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학생들은 아쉬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준 경험이라 생각했다.

유럽친구,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데 더



희 나라는 이렇구나 얘기도 하면서. 생각보다 비슷하네 이런 점도 많이 느꼈
던 것 같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윤지, 영어영문학과-

윤지 학생은 미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기대하고 교환학생에 참여했지만 이미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현지 학생들과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
다. 그러나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점이 의미 있는 경험이라 생각했다.

민주 학생과 세라 학생도 한국에서는 쉽게 교류하지 못했던 국가에서 온 친
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기회를 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스스로의 편견을 해소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무슬림 친구들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민주 학생은 그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색안경을 벗고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 이슬람 문화에
대한 수업을 듣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세라 학생 역시 파키스탄이나 아프
가니스탄과 같이 낯설게 생각했던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그들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하는 한편으로,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지켜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것 또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그냥 그 사람들 자체가 저한테 영향을 주었어요 한국사람 이외의 사람들 삶
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아예 다르고 한국 사람들은 아
등바등 살아봤자 캐나다 마트에서 일하는 캐서보다 불행하게 사는구나. 어떤
의미인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친 듯이 무한 경쟁에서 살고 있는데,
저기는 조기 경쟁을 통해 이미 1%의 엘리트가 선발되고 나머지 99%는 진짜
평화롭게 살아요 자기 할 일이 있으면 직업의 귀천도 없고 자기가 하는 그
일만 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영경, 식품자원경제학과-



영경 학생은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 자체가 자신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직업의 귀천의식 없이 자신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특히 진로계획에 대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태도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무엇을 할 때 스스로 가장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삶의 태도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었다.

제가 있었던 경험들은 다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 사는 모습 보면서 영향이 온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업 들은 거는 솔직히 그냥 새로운 것 배웠다 이런 느낌 이었고 제가 좀 성장했다라고 느꼈던 것은 거기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고 다 느낀 것들인 것 같아요

-주형, 경영학과-

주형 학생의 경우에도 학교 수업보다 현지 사람들과의 교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주형 학생은 무역이나 해외 영업과 같이 다른 국가 사람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진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체류 기간 동안 친구들과 수시로 어울리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만큼 사람들을 통해 배우고 변화한 점이 많았다.

메릴랜드 대학에 있었는데, 메릴랜드라는 특성상 인종의 다양성으로 미국에서 1위인 주가 메릴랜드예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인도 진짜 많았고 제 룸메이트는 호주인 이었는데,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서로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미, 경제학과-



정미 학생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다양성으로 1위라 알려진 메릴랜드에서 생활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인종과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둘러싸여 생활할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혼자 생활해보고 영어를 익히고자 목표를 세웠던 정미 학생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며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양한 친구들과의 교류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도왔으며 같은 아시아인이기도 미국에서 자란 아시아인과 한국에서 자란 아시아인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하고 우정을 쌓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기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변화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처음에는 편견과 낯설음으로 느껴지던 관계에서 점차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관계로 변화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은 다른 문화에서 온 외국인을 그들의 방식에 따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책에서 보고 들어서 알고 있던 정보와 그에 못지않게 함께 가지고 있었던 상대에 대한 편견도 있었지만, 서로 어울리는 과정에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영경 학생의 표현대로 교환학생 참여 기회는 학생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2) 체류 대학의 특성

앞서 살펴보았듯, 학생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학생들이 교류하는 사람의 특성은 체류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특성 또한 학생들의 경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제가 간 학교가 좀 잘하는 학교여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 생전 안 해 본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걸 해 보고 진짜 아등바등 꿈



부했던 것 같아요

-민주, 정치외교학과-

민주 학생은 학교 분위기가 특히 학업에 임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이야기하였다. 민주 학생도 주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한국 학생들은 흔히 외국 학생들은 한국에서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여유 있게 생활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교환학생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학업에 열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학생들은 현지에서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외국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라기도 했다. 이는 특히 학교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명문대학이라 알려진 학교에서 교환학생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더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애들도 되게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되게 공부 안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유럽에서 교환학생 온 애들은 학점이 자기네 학교랑 완전 똑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걔네들 되게 학점에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송이, 서어서문학과-

송이 학생 또한 학구적인 분위기에 놀라 수업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자유분방한 성향을 가진 외국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학교의 분위기에 크게 놀랐다. 특히 유럽지역의 경우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인해 학점 교류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없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는 유럽 학생들의 열의가 높았으며, 이는 송이 학생의 학습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제 친구랑 저랑 같은 학기에 영국에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외국인을 만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하려고 갔는데 한국인이 너무 많아버린 거예요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았으면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를 선택했겠죠

-희연, 교육학과-

한편으로 희연 학생은 스웨덴에서 생활한 자신과 영국으로 간 친구의 사례를 비교하며, 친구의 경우 자신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은 학교에서 생활해야 했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경험보고서에 의지해서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고, 학교를 지원하고 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험보고서만으로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이 목표를 이루고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학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학교의 특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미리 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의 특성과 더불어 개별 학과의 특성 또한 학생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희 학교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과별로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과 별로 어떤 과는 수업 개수도 별로 없고 학생들도 그렇게 잘 못한다고 그리고 제가 들었던 과목은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지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라고 하고 (중략) 과 별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중략) 구체적으로 이 학교가 무슨 과가 유명하고 이런 수업들이 있고 이런 정보 접근이 용이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윤지, 영어영문학과-

윤지 학생의 경우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습태도와 진로 계획에 변화를 겪었다. 자신이 소속되었던 학과의 경우 학생들의 열의가 높고 강의의 질이 좋은 편이었지만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



했던 친구들도 있었다며, 학과의 분위기 또한 중요한 학교 환경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로써 학생들이 학교와 학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는 사뭇 다른 수업 분위기 또한 학생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영경 학생은 처음에는 수업 도중에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점에 놀랐고, 점차 그 방식을 통해 배우는 점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 위계질서 없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교수님의 입장이나 생각에 반박을 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쉽게 떠올릴 수 없다는 점에서 대단하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질문을 한 번 하려고 해도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용기를 내어야 하는데, 의문이 해소될 때 까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외국 학생들의 모습은 참여 학생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처음에는 낯설게 생각했지만 점차 용기를 내어 질문을 하게 된 학생들은, 한국에 와서도 질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려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외국의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는 한국과 다른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스승과 제자 간의 예의가 더 우선시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수의 말에 반박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반면 외국에서는 비교적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고, 교수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업 분위기 또는 교수와의 관계가 학생들의 수업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서는 왜 그런 수업 분위기가 형성되기 어려운지, 어떻게 우리 안에서도 수업 분위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 하게 한다.

한국의 경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항상 위계가 생기게 되지만 외국에서는 위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약하고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이 또한 수업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지수 학생은 교수자가 먼저 자신의 생각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편하게 수업분위기를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틀리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더불어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면담을 하



거나 교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학생들은 K대학에서 생활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지섭 학생).

관련 연구(유현숙 외, 2011; 최정윤·이병식, 2009)에 따르면 교수와 학생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더불어 동료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을 통해 교수 및 동료학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업 참여 분위기의 형성은 학생들의 효과적인 수업 경험과 학습 측면의 발달을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한편 외국이라고 해서 전부 토론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과목이나 전공 특성에 따라서 강의식 또는 대형 강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또한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 진행 방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외국대학에서 학습하며 학생들은 훨씬 다양한 학문과 과목을 접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되는 과목의 선택 폭이 훨씬 넓었으며, 학생들은 한국에서 들을 수 없었던 과목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윤지 학생의 경우도 극작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없었고 진로에 대한 결정을 망설이고 있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수업이 개설되어 있었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꿈에 확신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찾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윤지 학생은 만약 교환학생을 다녀오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가게 되더라도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로 가야하는 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김종영(2008)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현지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과목과 우수한



인프라가 포함된다고 밝힌 점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국내 대학에서 접할 수 없었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고 기대하며, 외국 대학이 제공하는 풍부한 수업을 통해 학습태도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를 종합할 때, 학교 차원의 특성은 학생들의 경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K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희망하는 대학을 20지망까지 적어 내고, 이 중에서 선발 기준 점수에 따라 파견 학교가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 자신이 예상하지 않았던 학교에 배정 될 가능성도 있으며, 학생이 미처 고려하지 않은 환경에 놓이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각 학교별로 인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점차 교류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지역·국가 차원의 특성

학교 차원의 특성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생활하는 지역과 국가의 특성 또한 학생들의 경험에 차이를 형성하였다. 지역·국가 차원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은 각기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각 지역이나 국가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학생들이 교류하는 사람의 특성과 생활하며 겪는 어려움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미 학생은 미국 내에서 인종의 다양성으로 1위라고 알려진 메릴랜드 주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경험이 가장 큰 차이였다고 말했다. 성주 학생의 경우도 아시아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점이 본인의 경험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유엔에는 워낙 아시아 인구가 많아서 아시아인이 30%나 되요 약간 공부 좀 한다는 아시아인은 다 유엔으로 와서, 약간 아시아인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성주, 국제학부-

성주 학생은 아시아인이 많고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 태도가 자유로운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가 오히려 닫힌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주변 친구들과 교류하게 되며 오히려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차별적인 태도나 언어 사용을 자각하고 변화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체류한 지역이나 국가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의 차이가 크고 이를 통한 발달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송이 학생 또한 거주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송이 학생이 거주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도시였고, 특히 성적 소수자에게 자유로운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쉽게 만나고 교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지역의 특성을 모른 채 생활을 하였고, 가까이에서 성적 소수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 소수자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변화를 겪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제가 살았던 집에 스페인 남자가 게이였어요 처음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중략) 한국에만 있었을 때는 엄청 부정적인 건 줄 알았는데 거기 살면서 편견이 없어졌다고 해야 하나? 이제는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 갈 수 있고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송이, 서어서문학과-

성주 학생과 송이 학생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다문화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변화 기회를 마련하였다. 다른 인종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토론토가 되게 multi cultural한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온갖 나라 사람을



다 만나고 왔어요 아프리카 수단 사람부터 해서 이스라엘 요르단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럽은 거의 다 만나봤고 그런 도시에 가서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았다는 게 또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게 파견 가는 지역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영경, 식품자원경제학과-

영경 학생은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었다. 영경 학생은 원래 미국의 위스콘신을 1지망으로 토론토를 2지망으로 지원하였는데 2지망으로 파견가게 된 경우였다. 그러나 토론토에서의 생활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였으며, 특히 토론토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는 데 더 유리했으며, 결과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한국과는 달리 경쟁적이지 않은 현지 분위기는 학생들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한국에서처럼 많은 것을 고민하지 않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점을 의미 있게 생각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항상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고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거기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고민할 게 오늘 뭐 먹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유롭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희연, 교육학과-

Stephenson(1999)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국가적 특성에 따라 변화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입증한 것처럼, 국가의 문화와 신념, 경제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 환경적 특성은 학생들의 적응과 변화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학교 차원에서 교류를 맺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환경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돌아오기까지의 전 과정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Sowa, 2002). 더불어 학생들이 미리 현지 사회의 분위기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접하고 예상했던 바와 다른 점에 서 받는 문화적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4)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기회 자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심한 학생들은 적어도 한 학기 이상 교환협정이 맺어진 파견 학교에서 생활하며, 낯선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하게 된다. 함께 파견되는 학생 이외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처음 마주하는 낯선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특징으로 이러한 참여 기회 자체가 학생들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며 부모님과 친구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윤지 학생은 자신이 변화할 수 있었던 원인을 ‘교환학생에 참여한 그 자체’라고 이야기 하였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고, 언어적 장벽에 연연하지 않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고 문화적 차이를 체득하는 모든 변화 과정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윤지 학생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서 변화한 자신의 가치관을 꾸준히 유지해 가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익숙한 환경 속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교환학생에 참여할 때와 유사한 환경이 형성되어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만나거나 타문화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 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한 국가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그 나라의 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기회가 되었으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으로도 되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어떤 나라를 갔다면 차라리 그 나라의 다른



지역을 둘러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고 그 교환학생 기회가 아니면 다른 때는 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섭, 경제학과-

지섭 학생은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유럽지역을 여행 할 수는 있지만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통하는 경험은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교환학생으로 현지에서 생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여,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자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교환학생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낯선 환경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달라진 생활환경에 적응하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상황 자체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 문제 상황에 부딪히고 자립적으로 해결하는 과정 모두가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성격 자체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껍질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주, 국제학부-

한국에서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의 힘으로 준비해야 하고,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독립심을 길러주고, 또 스스로 해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아름 학생은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든지 가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 했다. 이와 더불어 먼저 나서서 해보려다 보니 자연히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스스로의 발전으로 보았다. 송이 학생과 윤지 학생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인해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혼자 살아 본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살림도 혼자 해보고 예전에는 집에서 다 해주는 것들을 혼자 하니까 그런 거에 되게 많이 깨우침을 얻었어요 내



가 이제껏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그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송이, 서어서문학과-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학생의 경우, 집안 살림도 스스로 챙기고
식사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등 이전에는 가족들이 도와주던 것을 혼자 해야 하
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윤지 학생).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
을 직접 해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며, 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생활방식을
터득하며 자립심을 기르고 개인적인 성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강조되는 세계화 흐름에 따라 고등교육 국제화는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고려요인이 되었다. 고등교육 국제화 현상 중에서도 학생이동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해외 협정대학에서 수학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자 대학의 대표적인 국제화 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으로 인한 학생들의 발달 양상을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의 발달 측면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대학생의 발달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러한 발달을 가져온 의미 있는 프로그램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적극적인 전략 마련을 통해 대학의 국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K대학교를 사례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K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선호하는 미국, 캐나다, 유럽 지역에서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학생들의 변화와 발달 양상, 변화에 영향을 준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면담하였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면담에 앞서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반구조화 된 면담으로 평균 50-60분에 걸쳐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한편 전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학생들이 제출한 교환학생 경험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분석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



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문화적 태도, 학습 태도, 직업과 성공에 대한 인식, 사회·심리적 성장의 측면에서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의 발달을 가져온 의미 있는 프로그램 영향요인은 크게 사전 목표 설정과 외국어 능력 등 개인 차원의 요인과 교류하는 사람의 특성, 체류하는 학교·지역 등 환경 특성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학생들은 낯선 환경에서 소수자의 입장에 놓이고, 타인종과 직접 교류하는 경험을 통해 문화적 역량의 발달을 이룰 수 있었다. 처음에는 특정 인종이나 국가, 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다가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나 학교에서 외국인과의 일상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를 통해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다. 한편으로 학생들은 외국 생활을 통해 소수 인종, 소수 집단,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 놓였다. 스스로가 소외되는 경험을 통해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나아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외국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등 적극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한국 사회와 문화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한국인으로서는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Deardorff(2006)가 제시한 이문화 역량 발달의 관점에서 보아도 학생들은 문화 개방성과 존중, 문화적 차이 인식과 적응능력,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등의 측면에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 태도와 학습에 임하는 태도, 교수에 대한 인식 등 학습태도 측면에서 크게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교수와 대화를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는 교수와 학생 간에 형성된 위계 서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라 인식하기 때문이었다. 다소 경직된 수업 분위기와 강의식의 수업 진행, 소극적인 수업 참여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활발한 외국의 수업 분위기에 놀라고 점차 자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수업 시간에 형성한 교수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교



수를 찾아가고 고민에 대해 상담을 하는 등 변화한 교류 양상을 보였다. 학생들은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변화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훨씬 편하게 생각하고 경계를 풀고 교수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외국 생활을 통해 여유로운 삶을 경험한 학생들은 직업과 성공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에 대한 인식이 획일적으로 형성되어,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경쟁적인 대학생활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외국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여유로운 삶의 태도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화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학생들은 단순히 해외로의 취업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 것 이상으로 직업적 성공과 좋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넷째,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각 개인이 자립심과 독립심을 기르고 자아에 대한 성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심리적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학생들은 낯선 환경에서 홀로 생활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이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 비해,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정체성 탐색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점도 학생 발달 측면에서 의미를 형성하였다.

다섯째, 개인 차원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은 각기 다른 경험을 하였고 발달 양상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도 개인의 성격과 외국어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경험은 차이를 보였고, 경험의 차이는 발달 양상에도 영향을 주었다. 적극적인 성격의 학생들은 끊임없이 외국 친구들과의 교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적었다. 또한 외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야기 하고, 수업 시간에도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일한 학교에서 생활하였지만 한 학생은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는 점을 뿌듯하게 생각한 반면, 소극적인 성격의 학생은 적응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참여기간 동안 꾸준히 노력하려는 학생의 태도 또한 학생 발달의 차이를 형성하는 요인이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학생들의 목표설정 여부, 성격과 외국어 능력의 차이와 같은 개인 차원의 요인은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학생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학생들이 생활하는 환경 또한 발달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어떤 학교·지역·국가에서 생활하는 지에 따라 학생들의 경험과 변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현지 학생들보다는 다른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어울리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수학하는 학교와 체류 지역의 분위기, 문화적 특성 또한 학생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으며 각기 다른 경험을 통해 변화해 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더불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학생들이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결론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대학생의 발달은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학생 개인 차원의 요인과 환경 차원의 요인은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경험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적극적 학습태도 형성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환학생 참여 경험을 통한 학생 발달에 관해 국외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지만, 이와 비교하여 한국 학생들이 보이는 독특한 발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교수 중심의 수업 분위기에 익숙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거나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성장해왔다. 이로 인해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교수자 중심의 수업을 편하게 생각하였으며, 처음에는 외국의 적극적인 수업 분위기를 낯설게 여겼다. 그러나 교수자와 학생 모두가 동등한 수업 환경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수업 태도 뿐 아니라 교수와의 상호작용, 적극적인 학습태도의 형성 등 전반적인 학업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한편으로 학생들은 사회적 인식보다도 자신이 원하고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점을 깨닫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가장 의미 있는 변화로 직업과 성공에 대한 인식 변화를 꼽았으며,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변화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렇듯 교환학생 참여 경험을 통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교수와의 상호작용 태도 변화, 직업과 성공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이다.

둘째,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스스로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시기적으로 적합한 발달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이다. 후기 청소년기는 성인기 이전 발달 단계로 심리적인 자립을 통해 스스로의 성격과 능력을 인정하고 독립적으로 인생을 계획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다(김혜래, 2013). 학생들은 낯설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생활하며 문제 상황을 해결하였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한 걸음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독립적인 경험을 한 학생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던 기존의 모습을 버리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로를 결정했으며, 새로운 도전과제를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후기 청소년기의 대학생이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적합한 발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셋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개인의 상태에 따라 발달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이기에 프로그램 참여에 앞선 준비 단계가 중요하다.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한 학생들도 개인이 설정한 목표나 언어 능력 등 준비 상태, 성격과 같은 개인 차원의 요인에 따라 각기 다른 변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심한 학생들은 스스로의 성향이나 특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나 국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 이전에 현지 생활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도한 목표에 맞게 학생들이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 차원의 요인에 따라 참여 학생의 경험과 발달 양상이 다르다는 점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프로그램의 한계점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분석하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탐색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둘러싼 환경 요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요인이 학생들의 경험과 발달에 주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견 국가와 지역의 특징에 따라 학생들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는 각기 다른 경험의 기회를 형성하여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적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한 학생의 경험과 발달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도 프로그램의 환경 요인이 주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과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파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와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학생들의 유익한 경험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또한 파견이 결정된 학생들도 현지 생활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와 학과마다 분위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목표 달성 여부, 생활 만족도 등 전반적인 교환학생 경험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K대학은 학생들이 파견되기 이전에 한 두 차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개별 국가나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귀국 학생을 대상으로 경험 보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라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협정 대학의 강의 정보나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한 학교별 매뉴얼 자료를 작성해서 공유하는 등 정보를 구축하는 방법을 대학차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현지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과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학점 교류생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교류 대학으로 떠나기 이전에 외국어 능력 향상과 목표 설정 등의 준비를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박영휘(2011)는 외국어 능력에 따라 국제화 교육을 통한 국제화 의식 향상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본 연구에서도 외국어 능력이 학생의 적응과 교류 경험에 의미를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환경 내에서도 학생 개인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준비 과정을 도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변화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파견 국가와 학교가 미리 결정되면 유사한 지역 학생들끼리 사전에 모여 현지 문화를 익히고,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며 목표를 설정하는 등 프로그램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는 보조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어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대학에서 학생을 파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한다. 더불어 이는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선발되고 귀국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Sowa(2002)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셋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재적응과 지속적인 발달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에서 생활한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 문화충격(reverse culture shock)’ 또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일부 학생들은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에 가치관의 혼란을 다시 겪고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Gonyea(2008)의 연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원래 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네트워크 마련 등을 통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수와의 상담은 학생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수업 시간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적응을 돕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 학생들이 재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참여 기간 동안 변화와 발달을 경험한 학생들은 귀국 후에도 자신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학교 분위기와 한국 사회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학생들은 이를 매우 아쉬워했다. 이에 학생들은 외국 학생 또는 유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어울리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운영되기를 원했다. 동일한 지역이나 학교에서 생활한 학생들 또는 그 지역에서 온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만나는 기회를 통해, 현지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고 지속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변화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넷째, 더 많은 학생에게 국제화 교육 경험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류 기회 확대 등 환경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환경 차원의 요인이 학생 발달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유사한 환경이 조성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비슷한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여전히 일부 학생에게 주어지는 교육 경험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 기회 확대, 국제화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국내 대학의 환경 조성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국제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경험 기회를 모색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첫 경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또한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화에 관심 있는 특정 학생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섯 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대학 생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어떠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지, 이러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프로그램 요인과 학생 발달 간의 세부적인 영향 관계를 살피기 위한 설문도구를 개발하거나,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 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K대학 학생들의 경험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둔 것에 비해, 연구 대상 대학의 범위를 넓혀 한국 대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어떤 발달을 하고, 어떤 점에서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 확장해 갈 수 있다. 이로써 국내 교환학생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과 배경에 놓인 학생들을 각자의 방식과 입장에서 이해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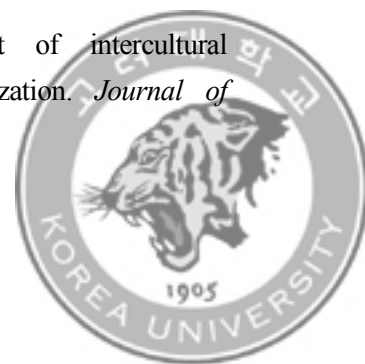
- 김경근·김정숙·이계형(2008). 세계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분석 및 그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8(4), 83-111.
- 김상학(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 169-206.
- 김양선(2009). 대학의 국제화 전략과 국제화 성과에 관한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정화·박선훈·조상미(2010). 한국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다양성태도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7(4), 183-210.
- 김정훈·박정민(2012). 한국 고등교육기관 국제화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대학의 제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4(1), 85-108.
- 김종영(2008). 글로벌 문화자본의 추구: 미국 유학 동기에 대한 심층 면접 분석. **한국사회학**, 42(6), 68-105.
- 김현경(2012). 유학생들의 타 인종 접촉과 다문화적 태도에 관한 사례 연구. **시민교육연구**, 44(4), 21-53.
- 김혜래(2013). 청소년 후기 발달적 특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사회적 유대감, 진로효능감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4, 85-105.
- 박상욱(2003). 효과적인 해외 영어 연수의 방향-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영어교육연구**, 15(1), 163-189.
- 박세일(2009). **세계화시대의 고등교육 선진화**. 서울: 한국사학진흥재단.
- 박소진(2010). 한국 사회 문화 재인식과 세계 속 자기 정체성 찾기: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동기와 경험. **Comparative Korean Studies**, 18(1), 217-262.
- 박영휘(2011).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이 국제화 의식에 미치는 영향. **국제이해교육연구**, 6(1), 35-77.
- 신태진(2011). 한국 대학들의 해외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환학생제도의 문제점 및 행정적 발전방안. **비교교육연구**, 21(2), 155-185.



- 양성혜(2007). 스페인어권 대학 한국교환학생들의 문화간 차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장애요소. **이중언어학**, **35**, 169-189.
- 임상현·변기용(2012).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2**, 123-155.
- 유현숙(2004). 대학원 구조개혁의 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4(1)**, 91-138.
- 유현숙 외(2010).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유현숙·고장완·임후남(2011).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학습과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4)**, 319-337.
- 이기정(2008).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현황. **대학교육**, **153**, 17-23.
- 이병식(2006).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분석: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한 종합적 접근. **교육과학연구**, **37(3)**, 279-298.
- 이병식·김혜람·공희정·박혜경·전민경(2012). 한국 대학효과 연구의 최근 동향. **교육과학연구**, **43(4)**, 191-219.
- 장나영(2012). 대학 영어 강의 정책의 비의도적 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 : K대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재욱(2005). 해외어학연수가 한국학생의 언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STEM Journal**, **6(2)**, 153-174.
- 지은림(2007). 대학교육의 국제화 요구와 그 수용에 관한 검토: “국제어”강좌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양교육연구**, **1(1)**, 187-208.
- 최정운·이병식(2009).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7(1)**, 199-222.
- 최준규(2008).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과 동이게 관한 비교연구. **종교교육학연구**, **28**, 213-234.



- Ahn, S. E. (2011). Exchange studies as actor-networks: Following Korean exchange students in Swedish higher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1), 46–57.
- Astin, A. W. (1985). *Achieving educational excell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 Astin, A. W.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 Bakalis, S., & Joiner, T. A. (2004). Participation in tertiary study abroad programs: The role of person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18(5), 286–291.
- Chickering, A. W., & Reisser, L. (1993). *Education and Identity*. San Francisco: Jossey-Bass.
- Chieffo, L., & Griffiths, L. (2004). Large-Scale Assessment of Student Attitudes after a Short-Term Study Abroad Program. *Frontiers: The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Study Abroad*, 10, 165–177.
- Choi, M. (1997). Korean students in Australian universities: Intercultural issues.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16(3), 263–282.
- Clarke, I., Flaherty, T. B., Wright, N. D., & McMillen, R. M. (2009). Student intercultural proficiency from study abroad programs.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31(2), 173–181.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 Cushner, K., & Mahon, J. (2002). Overseas student teaching: Affecting personal, professional, and global competencies in an age of glob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6(1), 44–58.
- Deardorff, D. K. (2006).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3), 241–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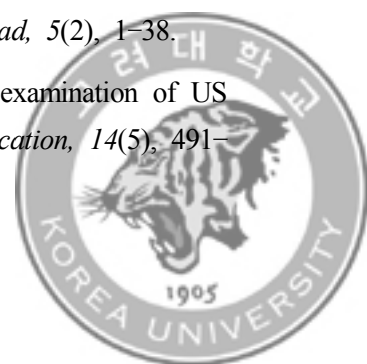
- Deveney, B. (2005). An investigation into aspects of Thai culture and its impact on Thai students in an international school in Thailand.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4(2), 153-171.
- Dolby, N. (2004). Encountering an American self: Study abroad and national identity.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48(2), 150-173.
- Dolby, N. (2007). Reflections on nation: American undergraduates and education abroad.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2), 141-156.
- Doyle, S., Gendall, P., Meyer, L. H., Hoek, J., Tait, C., McKenzie, L., & Loorparg, A. (2010). An investigation of factors associated with student participation in study abroad.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4(5), 471-490.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Fry, G. W., Paige, R. M., Jon, J., Dillow, J., & Nam, K. (2009). Study abroad and its transformative power. *Occasional papers on study abroad*, 32.
- Glesne, C. (2008). 안혜준(역). **질적 연구자 되기**.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서 출판 2006)
- Gonyea, R. M. (2008, November). The impact of study abroad on senior year engagement. In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 Hills, P. J. (1986). *Teaching, learning and communication*. Croom Helm.
- King, P. M., & Baxter Magolda, M. B. (1996).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learn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7, 163-173.
- King, P. M., & Baxter Magolda, M. B. (2005).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matur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6), 571-592.
- Knight, J. (2003). Updating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izatio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33(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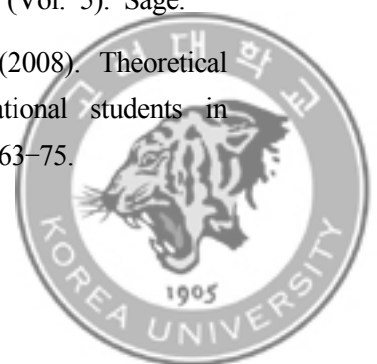
- Kohlberg, L. (1971). Stages of moral development. In C. Beck, B. Crittenden, & E. Sullivan (Eds.), *Moral educ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Kuhl, J. (1992). A Theory of Self regulation: Action versus State Orientation, Self discrimination, and Some Applications. *Applied Psychology*, 41(2), 97-129.
- Lewis, T. L., & Niesenbaum, R. A. (2005). Extending the stay: Using community-based research and service learning to enhance short-term study abroad.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9(3), 251-264.
- Lindsey, E. W. (2005). Study abroad and values development in social work student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1(2), 229-249.
- Marsick, V. J., & Watkins, K. E. (1999). *Facilitating learning organizations: Making learning count*. Gower Publishing, Ltd..
- McKeown, J. S. (2009). *The first time effect: The impact of study abroad on college student intellectual development*. SUNY Press.
- Norris, E. M., & Gillespie, J. (2009). How Study Abroad Shapes Global Careers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3(3), 382-397.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4). *Internationalisation and trade in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aige, R. M., Fry, G. W., Stallman, E. M., Josić, J., & Jon, J. E. (2009). Study abroad for global engagement: The long term impact of mobility experiences. *Intercultural Education*, 20(sup1), S29-S44.
- Paige, R. M., Fry, G. W., Stallman, E. M., Josić, J., & Jon, J. (2010). *Beyond immediate impact: Study abroad for global engagement (SAGE)*. Report submitted to the Title VI International Research and Studies Program, US 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 Pascarella, E. T. (1985). College environmental influences on learning and cognitive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and synthesis.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1(1), 1-61.
-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2005).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Findings and insights from twenty years of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Perry, W. (1970). *Forms of intellectual development in the college year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Perry, W. (1981). Cognitive and ethical growth: The making of meaning. In A. Chickering & Associates (Eds.), *The modern American college: Responding to the new realities of diverse students and a changing society* (pp. 76-116). San Francisco: Jossey-Bass.
- Phinney, J. S., & Alipuria, L. L. (1990). Ethnic identity in college students from four ethnic groups. *Journal of adolescence*, 13(2), 171-183.
- Relyea, C., Cocchiara, F. K., & Studdard, N. L. (2008). The effect of perceived value in the decision to participate in study abroad programs. *Journal of Teaching in International Business*, 19(4), 346-361.
- Rivza, B., & Teichler, U. (2007). The changing role of student mobility. *Higher Education Policy*, 20(4), 457-475.
- Rodgers, R. F. (1989). Student development. *Student services: A handbook for the profession*, 117-164.
- Sowa, P. A. (2002). How valuable are student exchange programs?.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2002(117), 63-70.
- Stephenson, S. (1999). Study abroad as a transformational experience and its effect upon study abroad students and host nationals in Santiago, Chile. *Frontiers: The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Study Abroad*, 5(2), 1-38.
- Stroud, A. H. (2010). Who plans (not) to study abroad? An examination of US student intent.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4(5), 491-



- Teichler, U. (1996). Student mobility in the framework of ERASMUS: findings of an evaluation study.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31(2), 153–179.
- Teichler, U. (2004). Temporary study abroad: the life of ERASMUS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39(4), 395–408.
- Tinto, V.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uleja, E. A. (2008). Aspects of intercultural awareness through an MBA study abroad program: Going “Backstage”. *Business Communication Quarterly*, 71(3), 314–337.
- Twombly, S. B., Salisbury, M. H., Tumanut, S. D., & Klute, P. (2012). *Study Abroad in a New Global Century: Renewing the Promise, Refining the Purpose*. ASHE Higher Education Report. John Wiley & Sons.
- Van der Wende, M. C. (1997). *The central role of universities in a global world: Final report of the 52nd CREBI-annual conference*. Geneva: GRE.
- Weidman, J. (1989). Undergraduate socialization: A conceptual approach.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5, 289–322.
- Weidman, J. (2006). *Socialization of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organizational perspectives*. Sage handbook for research in education: engaging ideas and enriching inquiry. Sage, Thousand Oaks.
- Wiers-Jenssen, J. (2008). Does higher education attained abroad lead to international job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2(2), 101–130.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Vol. 5). Sage.
- Zhou, Y., Jindal Snape, D., Topping, K., & Todman, J. (2008). Theoretical models of culture shock and adaptation in international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3(1), 63–75.



서울신문(2012.10.27.) ‘스펙 공화국’ 면하려면 기업 채용 방식 바뀌야

조선일보(2012.12.08.) 휴학 원하는 사회... 55%가 “기업 원하는 스펙 쌓으러 휴학”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 <http://www.academyinfo.go.kr/>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ABSTRACT

The Meaning of Exchange Student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s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Lee, Suji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Prof. Byun, Kiyo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student development from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 student exchange program, which has become a main strategy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Korean universities concentrate on an exchange student program as a strategy to strengthen their international education competency and students also expect that they would improve vocational abilities as well as multi-cultural competencies.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development phases from an exchange student program. This study also focuses on exploring factors affecting students' experience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sixteen students at K university who have studied abroad in the USA, Canada, and European countries as an exchange stu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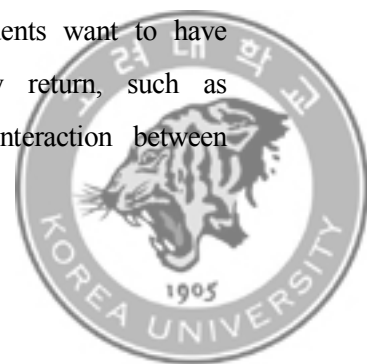
The findings in this study as follows: first,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student exchange program, developed their cultural competence and national identity as a Korean. Living as social minorities in a western society and interacting directly with other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students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Second, Korean students grew their learning attitude as well as value perspectives on occupation and social success. While they were abroad, students could escape Korean society which is very competitive in getting high social status and wealth. As exchange students, they could enjoy leisurely life style and concentrate their own thinking, instead of following what the society tells them to do.

Third, exchange student programs gave Korean students opportunities to develop independence. They could live alone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and had to make their own decisions. It could help students to enhance responsibilities for their choices and control their daily lives.

Fourth, individu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 college student development. Individual factors include individual personalities,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and determined goals. Meanwhile, environmental factors contain characteristics of an institution, region, and nation, which students stayed in. Each factor affected students' experiences differently; some factors produced positive changes, whereas other factors influenced negatively on students' experienc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1) for student preparation, Korean universities shoul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students; (2) it is necessary to offer training programs for setting a student's own goal and improving language skills; (3) students want to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their changed attitudes after they return, such as counseling, international networks and meeting groups for interaction between



Korean students and foreign students; (4) Korean universities should consider providing various educational opportunities about internationalization; (5)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analyze detailed relationships between exchange student program and college student development.

Key Words: Exchange Student Program, college student development,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